

제44회 강진청자축제
제18회 고려청자 학술심포지엄

20세기 고려청자 연구와 강진 청자요지

2016. 8. 1.[월] 14:00~17:00

고려청자박물관 1층 시청각실

진행순서

시 간	발 표 주 제
개 회 식	
14:00~14:05	개회, 축사
주제발표 1	
14:05~14:35	근대 미국에서 고려청자 Collection 형성과 연구 성과 김윤정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주제발표 2	
14:35~15:05	강진 청자요지의 조사 현황과 성과 조은정 고려청자박물관 학예연구사
주제발표 3	
15:05~15:35	고려시대의 越窯風 雙蝶紋 雙鳳紋 靑瓷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이희관 前 호림박물관 학예실장
15:34~15:45	휴 식
종 합 토 론	
15:45~17:00	좌장 방병선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장 박정민 한울문화재연구원 유물관리부장 이종민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목 차

주제발표1	근대 미국에서 고려청자 Collection 형성과 연구 성과	5
	김윤정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주제발표2	강진 청자요지의 조사 현황과 성과	27
	조은정 고려청자박물관 학예연구사	
주제발표3	고려시대의 越窯風 雙蝶紋·雙鳳紋靑瓷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고려 초기청자의 새로운 면모	49
	이희관 前 호림박물관 학예실장	
토론문		81

주제발표1

근대 미국에서 고려청자 Collection 형성과 연구 성과



김윤정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근대 미국의 고려청자 Collection 형성과 연구 성과의 의미

김 윤 정(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근대 미국에 고려청자 유입과 경제적 가치
- III. Freer의 고려청자 Collection의 형성 과정과 의미
- IV. 고려청자 Collection의 학문적 중요성과 연구 성과
-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 도자’는 미국에 소장된 한국문화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고려청자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로 미국 내 주요 박물관에 어떤 고려청자가 얼마나 소장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소장 과정이나 그 이후의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고, 고려청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발표는 근대 미국에 고려청자가 유입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고려청자 컬렉션과 그로 인해 수반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 근대 미국에 고려청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유입되었는지의 문제이다. 미국에서 한국 도자가 소장되기 시작한 시기는 1880년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되며, 주로 일본이나 유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청사기와 조선 16~17세기경에 제작된 지방 백자류였다. 고려청자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인적·물적 교류가 합법화 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에 유입되어 컬렉션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아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려청자가 미국에 유입되는 과정을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가격으로 환산된 경제적 가치가 시기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근대 미국에서 고려청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양과 질적으로 우수한 고려청자를 소장한 개인컬렉션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몇몇 개인컬렉션이 주요 미술관에 기증되면서 미국에서 고려청자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근대 미국의 개인 소장가나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고려청자 컬렉션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고려청자에 대한 그들의 생각[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근대 미국에서 고려청자가 어떻게 인식되었고, 그 가치가 어떻게 판단되고 결정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근대 미국에서 형성된 고려청자 컬렉션의 학문적 중요성과 연구 성과에 대한 부분

이다. 개인 소장가[Collector]나 박물관 등이 고려청자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유물카드의 내용 중에 유물의 출처나 출토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지만 제대로 조사·연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컬렉션이 형성된 이후 미국 내 동양 도자 연구자들이 고려청자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해서 근대 미국에서 고려청자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II. 근대 미국에 고려청자의 유입과 경제적 가치

1. 외교사절에 대한 예물로서의 고려청자

고려청자가 본격적으로 미국에 유입되는 가장 주요한 배경은 1882년에 체결된 조·미 수호통상조약으로 인한 인적·물적 교류의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이 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조선에 왔던 미국인들이 왕실에서 고려청자를 받았거나 이를 계기로 수집된 고려청자 컬렉션은 대부분 미국으로 유입된 정황을 볼 수 있다. 조선 왕실에서 고려청자를 하사받았던 첫 번째 미국인은 Percival Lawrence Lowell(1855~1916, 魯月)이다. 그는 매사추세츠의 유명한 로웰가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1883년 5월에 일본을 유람차 방문하였다가 조선의 미국 수호통상사절단을 만나게 된다. 로웰은 주일미국공사의 요청으로 이들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맡게 되고, 1883년 8월 18일 출발하여 11월 14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기까지 9명의 조·미수호통상사절단을 보좌하면서 번역 및 통역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보스턴미술관에는 로웰이 고종에게 받았다는 <靑磁象嵌菊花文鉢>이 소장되어 있으며, 1901년 12월 3일에 로웰이 기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도1) 이 고려청자는 고종이 그의 노고를 보고 받고 국민으로 초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에 조선에 머문 동안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¹⁾ 『윤치호일기』에는 로웰의 입국 이후에 행적과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884년 2월 20일에 윤치호가 “임금이 로웰 군에게 하사한 물건을 가지고 외아문으로 가서 로웰 군에게 전하고 공사관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²⁾ 고종이 하사한 물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아마도 로웰이 보스턴미술관에 기증한 고려 상감청자로 추정된다.



도 1. <청자상감국화문발>
고려 14세기 후반, 보스턴미술관

다음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1884년~1885년까지 1년간 한국에 머물렀던 John B. Bernadou(1858~1908 蕃於道)이다.³⁾ 그는 해군 장교이면서 SMITHSONIAN INSTITUTION 조사원

1) 로웰은 약 3개월간 한양에 머무르면서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을 백과사전 형식으로 자세히 기록했다. 그는 이 기록을 정리하여 1885년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2) 『尹致昊日記』 一, 한국사료총서 제19집, 1884년 高宗 21年 2月 廿日 “帶御賜魯君物種, 歸外衙門, 傳于魯君而歸館,…”

3) 한국 수집한 각종 물건이나 문화재를 소개한 『은자의 나라 民族誌(An Ethnography of the Hermit Kingdom)』를 비롯해 24권의 저서를 남겼다.

으로 활동하면서 민속품, 도자기 등을 수집하였다. 『윤치호일기』에는 1884년 7월 21일에 “아침에 물러나와 버나도우를 방문하고 그날 증전이 하사한 고려자기를 주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⁴⁾ 1884년에 명성황후가 윤치호를 통해 버나도우에게 고려자기를 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스미소니언의 1893년 보고서에는 버나도우가 수집한 5점의 고려청자가 수록되어 있지만 명성황후에게 받은 자기라고 명시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Horace N. Allen(1858~1932, 安連)은 1884년 12월에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일어난 갑신정변 때 민영익의 생명을 구한 대가로 고종에게 자수병풍과 고려자기를 받았다. 관련 기록은 당시 작성된 그의 일기와 1901년 출판된 고려청자에 대한 그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884년 일기에서는 ‘600, 700년 정도 된 완벽하고 매우 뛰어난 한국 도자’라고 설명하였는데⁵⁾, 1901년 글에서는 “작은 회녹색 대접 [little gray green bowl]”이 조심스럽게 싸여서 칠상자 안에 들어있었다고 하여 형태와 색, 하사받을 때 포장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글에는 미국 공사가 알려줄 때까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고려자기 [Korai ware]라는 것을 농담으로 생각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⁶⁾ 알렌이 1884년의 일을 계기로 고려청자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1901년경에는 고려청자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알렌은 1901년 글에서 고종에게 받은 고려청자가 1893년 스미소니언 보고서에 실려 있다고 하였는데, 크기는 높이 3.3cm, 입지름 12.7cm 정도이며, gray-green 색을 띠는 약간 두껍게 시유된 불투명한 유약이 시유된 문양이 없는 청자로 판단된다.⁷⁾(도2) 이 청자는 1889년에 미국국립박물관에 임시 위탁되었다가 알렌이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⁸⁾

조선왕실에서 외국 사절에게 주는 선물 품목에 고려청자가 포함되는 현상은 1880년대 이후부터 볼 수 있다. 1882년 9월 7일에 일본의 외무성에 보낸 국서와 예물 중에 “高麗磁器 一事”가 포함되어 있다.⁹⁾ 1889년에 고종이 프랑스 대통령 Sadi Carnot에게 선물한 두 점의 고려청자에 대한 소식은 미국에서도 관심있게 다루어졌다. 미국에서 매달 출판되던 『The Art Amateur』라는 잡지의 1889년 9월에 관련 기사가 단편으로 소개되었다.¹⁰⁾

4) 『尹致昊日記』 一, 한국사료총서 제19집, 高宗21年 甲申 7月 廿一日 “早退, 往訪蕃於道, 贈一高麗磁器, 是今日中殿御賜也.”

5) Horace N. Allen, 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학교출판부, 2008), p. 419. 1884, December 26, Friday “The other present was a piece of the ancient Korean pottery very perfect and said to me six or seven hundred old. The same man pronounces it a rare and choice piece.”

6) Horace N. Allen, *CETIFIED CATALOGUE OF A COLLECTION OF ANCIENT KOREAN POTTERY* (Nak Tong : The Seoul Press, 1901), pp.4~5. I received a high decoration and **a little gray green bowl, carefully wrapped up and encased in a lacquered box. I thought it must be a joke until informed by the then U.S. Minister that it was of this priceless Korai ware.** That piece is now in the Smithsonian museum and is described in Mr. Hough's pamphlet above cited.

7) Walter Hough, *THE BERNADOU, ALLEN AND JOUY COREAN COL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 (Washington : Smithsonian Institution, 1893), p. 437. 알렌이 고종에게 받은 고려청자는 보고서에서 ‘고려접시’로 분류되어 있으며, 청자의 기형이 접시에 가깝지만 약간 오목하여 ‘Bowl’과 혼용되어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번호 130885)

8) Chang-Su Cho Houchins, *An Ethnography of the Hermit Kingdom-The J.B. Bernadou Korean Collection(1884-1885)*, Smithsonian Institution, 2004, p. 18. 알렌은 1889년에 미국국립박물관(U.S. National Museum, 현 Smithsonian Institute)에 고종에게 받은 118점의 한국 물건을 맡겼다가 1928년에 완전히 기증하였다. 그런데 당시 알렌이 자기 대접 (ceramic bowl)과 호박구슬로 켄 끈을 돌려받기를 요청하여, 116점이 최종적으로 기증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때 알렌은 돌려받은 대접이 1893년 스미소니언 보고서에서 기재된 청자접시 130885번으로 추정된다.

9) 박영효, 『使和記略』 高宗 19年 壬午 九月 (『修信使記錄』 제9집) “禮物四種 麗史提綱一部二十三冊, 高麗磁器一事, 銀盤床一具十九件, 沁產紋席十立, 用表微儀, 尙冀鑑納.”

10) 『The Art Amateur』 Vol. 21, No. 4 (New York : Thomas J. Watson Librar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Sep., 1889), p. 71. “THROUGH President Carnot, the King of Corea has



도 2. 고려시대의 'Korean Pottery' , Report of National Museum, 1891년

내용의 전문을 보면, “조선의 왕이 13세기라고 하는 한국 자기 대접 두 개를 Carnot 대령에게 선물하였고, 현재 세브르국립도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뒤에는 왕이라고 해도 그 나라의 고대 물건의 연대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이 일은 1896년에 출판된 Stephen Wootton Bushell(1844~1908)의 『Oriental Ceramic Art』에도 언급되어 있고, “the most valuable of the ancient production of his poor country”라고 유물에 대한 평가를 인용하고 있다.¹¹⁾ 또한 부셀박사는 이와 유사한 연관문 대접이 뉴욕 Dana Collection에 있으며, 이 물건이 미국인 의사가 고종에게 받은 도자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물건은 1893년에 열린 시카고 박람회 때 알렌이 가져온 것으로 Charles H. Dana가 25불에 구입한 고려청자대접으로 추정된다.

1882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 왕실에서 고려청자를 일본이나 歐美 지역 외교사절에게 주는 예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1880년대까지 고려청자는 매우 제한적으로 왕실에서 선물용으로 사용되었고, 이 중 일부가 미국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民族誌學적 조사물로서의 고려청자

스미소니언 협회에서 1888년과 1893년에 간행한 보고서에는 미국인이 처음으로 조선에 직접 와서 조사한 토기, 청자, 백자, 옹기류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1893년 보고서는 앞서 언급된 John B. Bernadou, Horace N. Allen, Pierre Louis Jouy(1856~1894)가 주축이 되어 당시 조선에서 수집한 약기, 복식,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물건들과 조선인의 생활모습을 정리한 것인데, 이 안에 고려청자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당시 歐美지역 나라에서 동양권 나라들의 생활양식을 현지에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던 민족지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1893년 보고서에 실린 고려청자는 주로 버나도우와 알렌이 수집한 것으로, 그릇의 명칭을 한글 발음으로 표기하여 고려청자를 고려기[Koriu-gi], 고려청자 주병(Wine Bottle)은 'Koriu-gi-biung'[고려기병], 고려청자 잔과 받침(Wine Cup and

presented to the Sèvres Museum two bowls of **Corean porcelain**, said to be of the thirteenth century. We venture to say that not even the King of Corea can tell with certainty the date of any really ancient piece of his country's ware.”

11) Stephen W. Bushell, "KOREA", *Oriental Ceramic Art* (New York : Crown Publishers, Inc, Reprinted 1980, D. APPLETON AND COMPANY, 1896), p. 337.

Stand)은 'Koriu-sul-tjan and tjan-tai' [고려술잔과 잔대], 접시(saucer)는 'Koriu-jub-si' [고려접시], 대접(Bowl), 'Koriu-gi-bo-si' [고려기보시], 병(bottle)은 'Sul-biung' [술병]으로 병기하였다.¹²⁾ 송대 정요 백자로 추정되는 예도 송도에서 수집된 '고려기'로 분류되어 있어서 고려무덤에서 출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고려청자가 대부분 송도 근처의 무덤에서 출토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조사물로 수집된 청자들은 대부분 품질이 좋지 않은 양고, 수량도 많은 편은 아니다. 알렌은 1894년에서 1897년 사이에 일어난 청·일 전쟁, 1895년 을미사변 등으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도굴이 횡행하였고, 일본인들이 조선의 궁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기들이 약탈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³⁾ 고려청자가 민족지학적인 자료 차원에서 수집된 예는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Eli Bar Landis (1865~1898)의 수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펜실바니아대학박물관에 다른 민속품들과 함께 고려청자 일부와 조선청화백자 등이 소장되어 있다.¹⁴⁾

3. 상품으로서의 고려청자와 경제적 가치

미국에서 열린 박람회에 전시·판매되는 품목 중에 고려도자가 포함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1893년에 열린 시카고박람회에 조선은 처음 공식적으로 참가하였으며, 1893년 5월 3일에 25톤에 달하는 83개의 화물 중 68개가 출품되었지만 당시 품목에 고려청자 등의 자기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¹⁵⁾ 그러나 조선관 출품 및 행사 관할을 위해 명예사무대원 자격으로 박람회에 참가하였던 알렌이 남긴 기록 중에는 한국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고려청자 대접을 가져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대접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Charles H. Dana가 25불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¹⁶⁾ 알렌은 자신의 컬렉션이 1884년에서 1898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밝힌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고려자기가 상품으로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1년에 탁지부 세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던 탁지부회계국장 이준상이 자신의 무고를 청원하는 서류에서 高麗磁器 세 개 가격을 65원 80전으로 기재되었으며, 고려자기가 호피, 細簾, 尾扇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상품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1909년 4월 25일에는 한미흥업주식회사가 1만여 원치의 鑪器와 고려자기류를 6월에 개최되는 미국 시애틀박람회(Alaska-Yukon-Pacific Exposition)에서 판매[放賣]하기 위해 서 미국으로 출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¹⁸⁾ 한미흥업주식회사의 '高麗燒 買收' 문건을

12) Walter Hough, 앞의 책, pp. 435~438.

13) Horace, N. Allen, 앞의 글, p. 6.

14) Robert Oppenheim, "Ceramic Economies", *AN ASIAN FRONTIER-AMERICAN ANTHROPOLOGY AND KOREA 1882-1945*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p. 63~90.

15) 김영나, 「'박람회' 라는 전시공간: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와 조선관 전시」,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13 (서양미술사학회, 2000), pp. 101~104. 출품된 물건은 농산물, 원예물, 수산물, 광산물, 교통, 운수, 공예, 제조품 등이며, 공예나 제조품의 세부 항목에서 도자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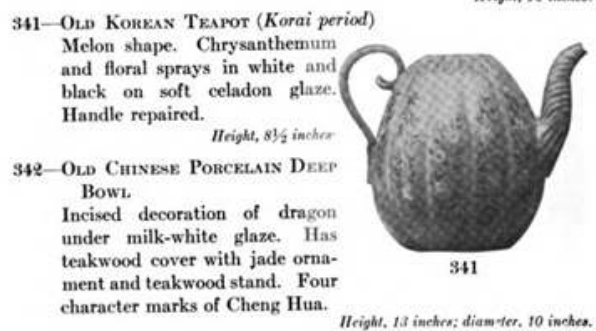
16) Horace N. Allen, 앞의 글, p. 6.

17) 『司法稟報(乙)』 31 請願書 光武五年八月日, “度支部會計局長 李濬相 …經費秩…一百五十元二十錢 虎皮二張價, 六十五元八十錢 高麗磁器三箇價, 三十九元六十錢 細簾十部 尾扇六十柄價…”

18) 『統監府文書』 6卷 一. 憲兵隊機密報告 韓美會社長 「マヤ」ニ就テ 憲機第九四九號 明治四十二年五月七日 (1909년 05월07일) “4월 25일 이곳을 출발하여 미국으로의 귀국길에 오른 미국인 메이어는 韓美興業株式會社 창립 이래 한국제 놋그릇(鑪鑪食器)과 고려 자기류(高麗燒類)를 몇 번에 걸쳐 40梱包, 가격 약 1만여 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미국에 수출했다는 것은 이미 보고한 바와 같거니와 同人은 이들 물품을 금년 6월부터 개최하는 시애틀박람회에서 방매할 목적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면, 고려 자기[高麗燒]는 서울과 개성의 골동상점에서 수집하였는데, 총 매수액이 2만원 이고, 현재까지 1500圓 정도를 샀고, 이미 남대문밖 운송점 일본인에게 위탁하여 미국으로 보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¹⁹⁾ 수출된 고려자기는 재현자기가 아니라 골동품으로 판단되며, 상당한 양의 고려자기가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미흥업주식회사의 미국 거래처나 시애틀박람회에서 판매된 고려자기의 실물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²⁰⁾ 당시 문건에는 실제 8000원 여치의 유기와 고려자기류를 수출하였고, 상당한 순이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실제 박람회에서 한국제 유기그릇의 구매자가 많아서 2차 수송을 원하는 전보까지 왔다는 기록이 확인된다.²¹⁾ 그러나 판매대금이 미국 거래처에서 회수되지 않아서 미국인 사장 메이어가 미국 현지로 가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²²⁾

당시 미국에서 고려자기를 취급한 골동상회는 야마나카상회, American Art Galleries가 대표적이었으며,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려자기를 입수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아직 확실하지 않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골동상회의 카탈로그에서 고려청자는 1911년부터 시작하여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집중적으로 보이며, 조선 백자와 분청사기는 극히 일부이며 한국 도자는 대부분 고려청자가 중심이었다.²³⁾ 1915년 야마나카상회에서 출판한 판매용카탈로그에는 현재 고려청자박물관에 소장 중인 <청자상감국화문과형주자>가 실려 있다.(도3)



도 3. Yamanaka&Company의 판매용 Catalogue, 1915년

4. 소장품으로서의 고려청자와 경제적 가치

1910년대 이후에는 고려청자를 수집하는 개인 컬렉터가 늘어나고, 이들 중의 일부가 전시에 출품되고 박물관, 미술관의 소장품 목록에 포함되면서 미국 내 동양 도자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표 1>. 고려청자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조형적인 면에

19) 『統監府文書』 6卷 憲兵隊機密報告 明治四十二年三月十六日 ‘韓美興業會社員의 高麗燒 買收’, “韓美興業株式會社에서는 현재 한국의 高麗燒와 鎭鎭製 食器를 미국에 수출할 계획으로 동 회사 부사장 클래팜은 京城 골동상점 등에서 이들의 주문 혹은 매수에 분주하였다. 또한 開城 재류 일본 상인으로부터도 약간의 高麗燒를 보내 올 예정으로 총 매수액은 약 2만圓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매득한 그 물품은 약 1,500圓 정도로, 첫 번째 수출할 것을 南大門 밖 운송점 일본인 某에게 위탁하여 2일 전 미국을 향해 발송했다고 한다.”

20) 『매일신보』 1909년 3월 4일에는 한미흥업주식회사가 시애틀박람회에 대한제국의 물품을 출품하는 유일한 회사임을 선전하는 광고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21) 『統監府文書』 6권 憲兵隊機密報告 韓美會社 수송품의 好成績 明治四十二年六月十七日 (1909년 06월17일) “어제 韓美興業會社의 渡美 중인 사장 메이어로부터 시애틀박람회에서는 한국제 유기그릇의 구매자가 많아 성적이 양호하므로 속히 제2차 수송하라는 의미의 전보가 왔다고 한다.”

22) 『統監府文書』 6권 憲兵隊機密報告 韓美興業會社의 경영난 및 현황 “위는 韓美興業株式會社에서 한국 鎭器와 高麗燒류를 수차례 미국에 수출했지만 이의 대가 금 8,000여圓이 아직 거래처로부터 송부되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 수집의 명목 아래 불원간 일단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23) 김윤정, 「근대 미국에서 ‘한국도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배경」, 『미술사학』 3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6, 8월 출간예정).

서 일본이나 중국 자기와 다른 특징이 있었고, 무엇보다 품질에서 우월한 면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장가가 고려청자를 구입한 경우는 여러 명이 확인되지만 형성 과정이나 구입 가격이 알려진 예는 극히 드물며, Charles Lang Freer의 경우 Allen이 수집한 80여 점의 고려자기를 3000불에 구입하였으며,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소개할 것이다.

보스턴미술관에서 1911년에 구입한 41점의 한국도자도 대부분 고려자기였으며, 남아있는 목록과 회의록을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당시 구입한 고려자기는 Langdon Warner가 일본에서 수집한 물건이었고, 그는 미술관의 아시아 담당 학예사로 1910년부터 1913년까지 중국, 일본, 한국을 돌며 수집활동을 하였다. 그가 일본에서 수집한 도자 80여점 중에 ‘corean’으로 표기된 41점에 총 2351엔을 지불하였다.²⁴⁾ 이 중 높은 가격은 <청자죽문병>은 350엔, <청자음각용문매병>, <청자상감유로문병>은 각각 275엔이었다.(도4) 대접류는 보통 30엔에서 60엔 정도였지만 유물의 질에 따라서 10엔으로 책정된 경우도 있으며, <청자음각모란당초문완>은 색이 좋고 ‘ama ryo’ 즉 螭龍이 음각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120엔으로 책정되었다. 엔화는 달러에 비하여 반정도의 가치로 환산되어 350엔은 175달러, 275엔은 137달러, 120엔은 60달러 정도이다.²⁵⁾

24) 남아 있는 가격 목록과 회의록을 보면, 41점에 2351엔, 포장비 등 190.88엔을 합쳐서 2541.88엔이었으며, 미술관에서 보내준 돈 2600엔에서 남은 58.12엔을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오고 있는 두 점을 예약한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회의록에는 ‘Jams Fund’의 수입으로 랭던 워너가 선택한 최상의 물건이 포함된 한국도자(Korean pottery)를 구입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25) Sung-mi Kim, “The Movement of Long-Term Exchange Rate in Korea, Japan and China 1900–2000” (MA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p.52.

표 1. 근대 미국의 한국 도자 컬렉션의 형성시기와 성격

	컬렉터	형성시기	형성지역	한국 도자의 성격	비고 (현 소장처)
1	William Thompson W a l t e r s (1819~1894)	1884~1894	미국	조선 분청사기, 지방백자류	미국 최초 동양도자컬렉션
2	Frank Brinkly (1841~1912)	19세기 말	일본	조선 분청사기, 지방백자류	동양도자컬렉션
3	Morse, Edward Sylvester(1838~1925)	1892년 이전	일본	토기 중심, 조선분청사기, 백자 고려청자 일부	보스톤미술관 (1892년 기증)
4	Charles Lang Freer (1854~1919)	1896~1917 1907년 이후	뉴욕	분청사기, 지방백자류(1896,1897) 고려청자 중심	프리어갤러리 (1920년 기증)
5	Horace N. Allen (1858~1932)	1884~1898	서울, 개성	고려청자, 송대 백자 (80 여점) → 프리어 구입(1907)	프리어갤러리
6	Samuel T. Peters (1854~1921)	1915년 이전	뉴욕	고려청자, 송대 청백자	메트로폴리탄미술관 (1915년 기증)
7	Langdon Warner (1881~1955)	1910~1913	한국, 일본	고려청자 중심	보스톤미술관 클리브랜드미술관
8	Worcester R. Warner(1846~1929)	1917년 이전	한국	고려청자 중심,	클리브랜드미술관
9	Alfred Irving Ludlow (1875~1961)	1921년 이전	서울	고려청자 중심 (Jhon L. Severance 구입)	클리브랜드미술관 (1921년 기증)
10	Russell Tyson (1867~1963)	1920년 이전	한국	고려청자 중심	시카고미술관
11	Desmond FitzGerald (1846~1926)	1926년 이전	미국	고려청자 중심	메트로폴리탄미술관
12	Tomita Gisaku (1858~1930)	1928년 이전	서울	고려청자 중심	1928년 카탈로그
13	J. H. Morris	1925년 이전	서울	고려청자 중심 (금속 촛대, 조선시대 가구)	1925년 카탈로그
14	Hoyt Charles Bain (1889~1949)	20세기 전반	미국	고려청자, 조선분청사기, 백자	보스톤미술관 포그미술관

고려청자의 가격은 1920년대 이후에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예가 1927년에 판매되었던 Desmond FitzGerald Collection이다. Desmond FitzGerald(1846~1926)는 예술품 후원자, 수집가이자 엔지니어였으며, 그의 사후인 1927년에 그의 후손인 Harriet F. Clark, Caroline Van Rensselaer Harold, Stephen FitzGerald의 주문으로 그의 소장품들이 대거 판매되었다. FitzGerald Collection 중에 중국·한국 도자를 중심으로 제작된 1927년 판매용 카탈로그로 전체 546점 중에 고려청자는 약 205점정도이며, 도판까지 실리는 등 주목할 만하다.²⁶⁾ 1927년 4월 23일과 24일자 New York Times에서 FitzGerald Collection의 판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점은 전반적으로 고려청자의 경제적 가치가 이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24일자 기사에는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회녹색 유약 아래 모란절치문이 장식된 고려청자를 1500불에 낙찰 받았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이 유물은 <청자양각연화·황촉규문매병>(No.27.119.1)으로 매병 몸체 전면에 연꽃과 황촉규가 折枝 형태로 음각되어 있으며, 당시 모란으로 오인한 것이다.(도5) 이 매병의 가격은 중국, 한국 도자를 합쳐서 컬렉션 유물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청자양각원앙문표형주자>(No.27. 119.2)는 560달러, <청자양각작약문

26) *Chinese and Korean Potteries & Porcelains : Collection of the late Desmond FitzGerald*, (New York : American Art Association), 1927.



도 4. <청자대나무모양병>
고려 12세기, 높이 34.8 cm
보스턴미술관, 1911년 350엔 구입



도 5. <청자양각 연화·황촉규문 매병>
고려 12세기, 높이 34.9cm
메트로폴리탄미술관
1927년 1500불 구입

대접>은 475달러,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은 375달러에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구입하였다.²⁷⁾ 보스턴미술관에서도 음·양각의 완류 130에서 140불, 과형주자 300불, 상감청자합 100불에 구입하였으며, 시카고미술관도 청자주자를 800불에 구입하였다.²⁸⁾ 프리어가 1907년에 구입한 고려청자 중에 대접류가 25불에서 40불, 보스턴미술관이 구입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참외형주자는 125불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려청자의 가격이 두세 배에서 대여섯 배 정도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가격이 책정된 유물은 대체적으로 고려 12세기 음양각청자가 주를 이루며, 당시 전형적인 판단 기준은 문양보다 유색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청자의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당시 거래되던 중국이나 일본 도자 중에서도 높은 가격에 해당되는 경우였으며, 1930년경에는 이미 질이 좋은 고려청자는 엄청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²⁹⁾ 고려청자의 경제적 가치의 상승은 1930년대 이후에 고려청자 컬렉션이 형성되지 않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7)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1927년에 Desmond FitzGerald Collection에서 구입한 고려청자는 유물번호 27.119.1부터 27.119.13까지이며, 27.119.22는 19세기 말 조선 청화백자, 27.119.17, 18은 고려백자로 되어있지만 송대 자기로 추정된다.

28) New York Times 기사는 인터넷 검색 site에서 확인하였음을 일러둔다. ([http:// timesmachine.nytimes.com/browser](http://timesmachine.nytimes.com/browser))

29) Lorraine O. Warner, "Korai Celadon in America", Eastern Art Vol.II (PHILADELPHIA : the College Art Association, 1930), p. 81.

III. Freer의 고려청자 Collection의 형성 과정과 의미

현재 스미소니언 프리어갤러리 소장 ‘한국 도자’는 대부분 찰스 랭 프리어(Charles L. Freer, 1854~1919)에 의해 수집된 것이다.(도6,7) 그가 한국 도자를 수집하는 중에 주고받았던 편지, 구입증서, 가격 영수증, 구입 당시 묘사[스케치]·기록, 관련 서류 등에서 ‘한국 도자’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많은 자료를 프리어갤러리 아카이브실에서 조사·수집하였다 <표 2>.

Charles Lang Freer는 1896년부터 한국 도자를 구입하기 시작하였고, 초기에 주로 Yamanaka Sadajiro가 세운 골동상회[Yamanaka&Company]를 통하여 한국 도자를 구입하였다.³⁰⁾ 구입 시기는 1896년부터 1917년까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초기에 구입된 한국 도자는 대부분 일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품질이 낮은 지방백자류나 분청사기류의 그릇으로 일본에서 다완으로 사용된 자기들이 많이 보인다.³¹⁾ 마에다 다이묘 집안에서 사용하였



도 6. Charles L. Freer(1854~1919) 도 7. 프리어갤러리 한국실

다는 다완 10점은 한 상자 안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프리어는 이 다완 10점과 또 다른 다완 34점, 병 1점을 포함하여 45점을 \$500에 구입하였는데, 일본 다완 한 점에 5불에서 15불 정도의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어의 한국 도자 Collection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1907년에 Horace N. Allen(1858~1932)에게 구입한 80여점의 한국 도자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알렌은 의사이자 선교사로 1884년에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일어난 갑신정변 때 민영익의 생명을 구한 대가로 고종에게 자수병풍과 고려자기를 받았고, 이후에 한국 도자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901년에 작성된 ‘한국 도자’에 대한 논고는 알렌이 한국 도자를 수집했을 때의 시각과 기준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소장했던 80여점의 고려자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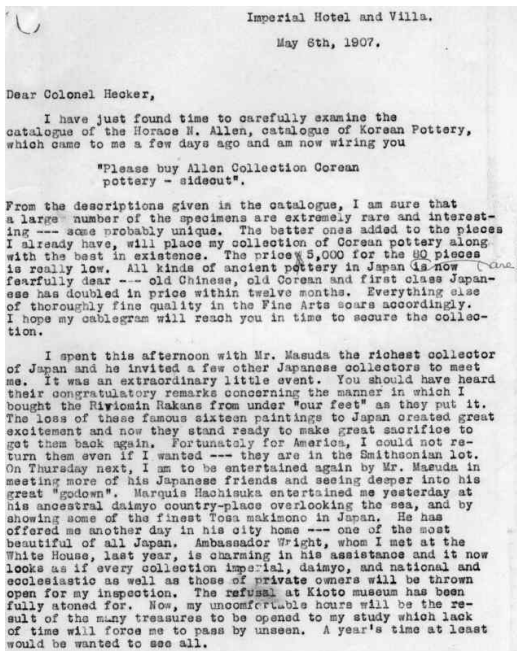
30) 야마나카 상회는 오사카 출신 상인인 야마나카 사다지로(山中定次郎, 1866~1936)가 설립한 국제적인 고미술 거래업체이며, 1895년 미국 뉴욕의 작은 미술품 상점을 연 이래 보스턴(1899), 시카고, 런던, 파리, 베이징(1917)에 지사를 두고 운영하였으며, 1945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문을 닫았다.

31) 프리어가 1896년에 처음으로 구입한 한국 도자는 조선 16, 17세기 지방 백자로 일본에서 찻그릇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1897년에 카가[加賀, 현 石川県 金沢市] 지방의 마에다[前田] 다이묘[大名] 집안에서 사용하던 다완 10점을 구입하였다. 현재 10점 중에 6점 조선, 2점 중국, 2점이 일본 자기로 판단되었지만 프리어가 구입할 당시 영수증에 3점만 한국도자로 표기되어 있다.

1907년에 프리어에게 판매하였다. 프리어가 알렌의 소장품을 구입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편지, 매매 영수증뿐만 아니라 프리어의 스케치와 유물을 설명한 기록 등이 남아 있다.³²⁾

프리어에게 알렌의 한국도자 Collection에 대한 정보와 구매 의사를 타진한 것은 알렌의 조카사위였던 Frederick J. Flagg였으며, 그가 1907년 3월 13일경에 프리어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다. 하지만 당시 프리어는 동양권을 여행 중으로 미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Frank J. Hecker(1846~1927)는 프리어의 부재를 알리는 답장을 보냈고, 알렌은 그가 직접 쓴 한국도자에 대한 글을 첨부하여 보내고 있다. 이후 Frederick은 1901년에 쓴 알렌의 글을 첨부하면서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35점의 도자기만을 구매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알렌은 전체 소장품을 한꺼번에 팔기를 원하며, 요구 금액은 5000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에 머무르던 프리어는 유물을 보지 못한 채 알렌의 글을 읽고 해커에게 한국 도자 컬렉션을 구입할 것을 요청하는 5월 6일자 국제 전보를 보내고 있다. 프리어는 알렌의 글을 읽고 ‘한국 도자를 묘사한 내용으로 볼 때, 자기들은 매우 드물고 귀하며 흥미롭다고 하면서 80점에 5000불은 정말 낮은 가격이라는 의견을 쓰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모든 종류의 고대 도자가 굉장히 비싸고, 12달 안에 가격이 두 배가 될 것이라고도 장담하면서 알렌의 컬렉션을 꼭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도8, 9)

그러나 실제 알렌의 한국 도자 Collection은 5월 22일에 80점에 3000불의 가격으로 매매



도 8. Freer가 일본에서 보낸 편지, 1907년



도 9. Allen의 한국 도자 Collection
Freer 1907년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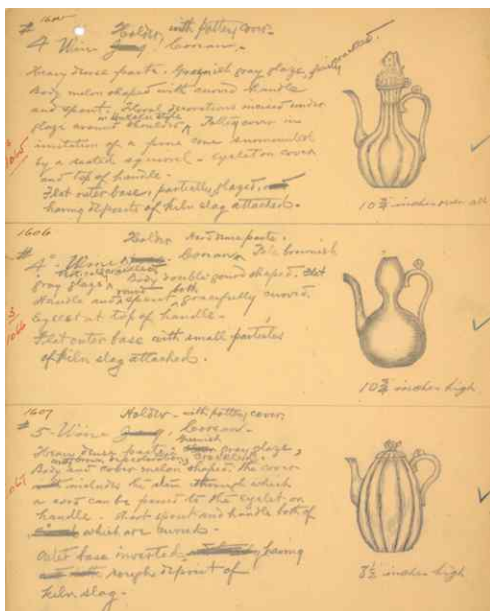
되었고, 거래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지만 해커가 알렌에게 최저 가격으로 제시한 것을 일괄 판매를 원했던 알렌이 받아들이면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프리어는 5월

32) 찰스 랭 프리어가 알렌의 고려청자 컬렉션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편지와 자료, 구입 영수증, 구입 이후 유물 스케치와 설명 자료 등이 현재 스미소니언 프리어갤러리 아카이브실에 모두 보관되어 있으며, 필자가 직접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음을 밝혀둔다.

30일에 도쿄에서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최저가격으로 구입해준 친구 해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 당시 개개 도자에 대한 가격을 보면, 대접류는 대체적으로 25불에서 40이었고, 병이나 주자류는 125불에서 200불 사이에서 책정되었다. 경덕진 청백자 주자, 청자과형주자, 청자장경병 세 점이 각각 200불로 책정되어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

프리어는 이후에 알렌에게 구입한 고려자기 80여점을 모두 스케치하고 유물의 상태를 묘사한 노트를 작성하였다.(도10, 11) 노트의 내용은 유물에 대한 묘사이지만 유약과 유색의 상태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같은 유물을 설명한 알렌의 글 내용과 비교해볼 때, 알렌이 형태 설명에 치중한다면 프리어는 다양한 유색의 묘사와 빙렬의 모양이나 형태 등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리어의 도자를 보는 관점은 그가 구입한 피코크룸의 선반에 장식된 도자를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현재 프리어갤러리 내에 옮겨진 피코크룸은 프리어의 도자 취향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도자 전시 공간이다.³³⁾ 레이랜드가 피코크룸을 설계했을 때 대부분 중국 청대 강희제 시기의 청화백자가 진열되었던 반면에 프리어는 단단하고 분명한 표면의 청화백자는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거친 표면과 칙칙한 유약의 도기나 자기를 좋아했고 색의 표현에 민감했다.

그가 수집한 아시아 도자를 전시한 'The Peacock Room'의 서쪽 벽면에 고려청자가 긴 벽면 한쪽에 가로 한 줄로 배치되었고, 그 오른쪽으로 세로로 배치된 것도 있다. 주자와 병류이며, 유색이 회색빛의 녹색을 띠는[grayish green glaze] 청자이다. 프리어가 ‘한국 도



도 10. Feer의 고려청자 스케치 및 설명노트



도 11. <청자표주박형주자>

고려 12세기, 프리어갤러리
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자기의 품질이나 제작 시기 등의 표준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의 색감과 미학적 기준이었고, 알렌의 고려청자 중 몇 개도 피코크룸의 벽면 선반을 장식하는데

33) ‘The peacock room’은 원래 선박업자인 Frederick Leyland(1832~1892)의 리버풀 저택에 있던 식당이었는데, 예술적인 장소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였다. 건축가 Thomas Jeckyll(1827~1881)을 고용하여 강희년계의 청화백자를 진열할 수 있는 격자선반을 디자인하도록 하였고, 그는 다시 휘슬러에게 그 공간의 색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휘슬러는 그 방을 1876과 1877년에 “harmony in blue and gold”로 다시 장식했다. 1892년에 레이랜드가 죽은 후에 그의 저택과 피코크룸은 Blanche Watney에게 팔렸다. 1904년에 다시 미국인 컬렉터 J. P. Morgan에게 팔렸는데 실제 매매인은 찰스 랭 프리어였다.

사용되었다.

프리어의 고려청자 컬렉션은 1914년과 1916년에 개최된 전시에 대여되었고, 고려청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914년 뉴욕 Japan Society에서 주최한 ‘일·중·한 도자전’ 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개최한 1916년 특별전에 처음으로 고려청자가 제대로 전시되었고, 도판과 유물 설명이 들어간 카탈로그가 출판되었다.³⁴⁾ 전시된 고려자기는 Freer 소장품 30점, Samuel T. Peters의 소장품 11점, John Platt의 소장품 8점 등이 대여된 것으로, 근대 미국에서 고려청자의 조형적 우수성을 알리고 연구하는데 프리어와 같은 개인 컬렉터들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고려청자 컬렉터들이 사망하는 1920년대 후반 이후에는 새로운 고려청자 컬렉션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고려청자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2. 1907년 프리어가 알렌의 ‘한국 도자’ 소장품을 구입하는 과정의 관련 서류

	서류 제목	내용
1	List of Korean pottery : Cost Prices and Insurance Valuations	프리어갤러리 소장 한국 도자의 구입가격과 보험가치
2	Certified Catalogue of a Collection of Ancient Korean Pottery Purchased and Owned by Horace N. Allen, U.S. Minister, To Korea.	알렌 소장 한국 도자에 대한 알렌의 평가와 묘사 기록
3	Purchased by Mr. Freer from Horace N. Allen	알렌에게 구입한 한국 도자 80점의 스케치와 기형, 문양, 크기 기록.
4	Pottery Description SI 96-300 Made by Miss Gardner following note made by Mr. Freer	프리어갤러리 소장 한국도자에 대한 기형, 문양, 크기, 유색, 번조받침, 시문기법 등을 자세하게 기록.
5	Frederick J. Flagg가 프리어와 해커 에게 보낸 편지와 답장 [1907년 3월 13일, 14일, 15일, 21 일]	알렌의 소장품이 프리어에게 소개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내용.
6	Regarding my collection of 82 pieces of ancient Korean pottery - 1907년 3월15일	알렌이 프리어에게 자신의 한국 도자 소장품을 소개하는 글이며, 1900년대 초에 한국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됨 [편지에 동봉함]
7	프리어가 Colonel Hecker에게 보낸 편지 [5월 6일, 30일]	Allen의 유물 구입과 관련하여 해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내용.
8	해커가 프리어에게 보낸 전보 알렌이 프리어에게 보낸 편지[12월4 일]	알렌의 한국 도자 소장품을 꼭 사라는 내용 감사의 내용
9	KOREAN POTTERY	한국 도자의 가치, 기원, 기록, 중국과의 관계, 출토 지역, 제기류, 기종, 문양, 특징을 chapter별로 기술
10	1907년 5월 22일 구입 영수증	영수증 : 알렌 소장품 구입

34) Hobson, Morse, Chinese, *Corean and Japanese Potteries -descriptive catalogue of Loan Exhibition of Selected example-* (New York : Japan Society, 1914); S.C. BOSCH REITZ, *The Catalogue of Exhibition of Early Chinese Pottery and Sculpture* (New York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16).

IV. 고려청자 Collection의 학문적 중요성과 연구 성과

1. 고려청자 Collection의 학문적 중요성

근대 미국에 형성된 고려청자 Collection은 현재 고려청자 연구에서 학문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며, 근대 미국에서 축적된 고려청자에 대한 연구 성과 부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컬렉션이 형성되거나 구입 혹은 수집 당시에 작성된 유물에 대한 기록이 가지고 있는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이다. Langdon Warner(1881~1955)가 일본에서 수집해서 1911년에 보스턴미술관이 구입한 도자는 총 80여점이며, ‘Korean Pottery’ 로 기록된 도자는 41점이다.³⁵⁾ 구입 당시의 관련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구입 당시 “Korean Pottery” 목록에서 <청자유개잔>에 해당하는 내용은 ‘vertical sided bowl and cover from tombs of Jinso, repaired, 50yen’ 로 기재되었고, 당시 작성된 유물카드에도 기형, 문양, 유색, 크기, 가격 등과 함께 “Said to be from tomb of Jinso(Jinso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진다)” 라는 기록과 “Repaired with gold lacquer” 라는 기록이 추가되어 있다.³⁶⁾ 이제까지 “Jinso”는 지명이나 인명 정도로 추정했지만 진소는 仁宗의 일본식 발음이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인종 무덤 출토품을 일괄 구입한 시기가 1916년 9월 25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랭던 워너는 이보다 5년이나 앞선 1911년에 일본에서 인종 무덤에서 출토된 <청자유개통형잔>을 구입한 것이다. 인종의 무덤이 도굴된 시점은 1911년 이전이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괄 유물 외에 더 많은 유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보스턴미술관 소장된 두 점의 <청자유개잔>은 실제 크기, 형태, 굽 모양, 뚜껑과 잔 굽바닥에 규석이 받쳐진 형태까지 매우 유사하여 인종 무덤에서 함께 부장되었던 것임을 더욱 확신하게 한다.(도12, 13) 구입 가격도 1911년에 50yen, 1916년 55圓으로, 당시 한국과 일본의 환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값에 거래된 것을 알 수 있다. 인종 무덤 일괄 출토품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판매한 쿠로다 타쿠마(黒田太久馬)는 골동상이 아니라 일본육군대학교수이자 일본어학자로서 유명한 컬렉터이기도 하였다. 현재 프리갤러리에 소장된 <청자동채연화형주자>도 1915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쿠로다가 프리어에게 판매한 것이며³⁷⁾, 당시 그는 Panama-Pacific Exposition의 일본 황실 미술품 전시 담당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다.³⁸⁾ 실제 개성 일대 고려 고분에서 도굴된 많

35) 정수형, 「보스턴미술관 한국미술품 소장사」, 『미술자료』 제84호 (국립중앙박물관, 2013), pp. 108~110.

36) 청자 통형잔의 유물카드의 기록 시점을 보스턴미술관에 문의한 결과, 유물카드는 구입과 동시에 MFA 소장품으로 등록하면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1911년에 랭던 워너 큐레이터의 지시하에 소장품 관리팀 혹은 학예부서의 타이퍼가 만든 노트일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들었다.

37) 유물번호 F1915.50는 프리어가 Kuroda Takuma에게 1915년 11월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8) New York Times 1916년 7월 2일자에는 Takuma Kuroda와의 인터뷰 기사가 전면에 게재되었다. 그가 수년 동안 한국에서 직권상 외교적 대변인이었으며, 이토 히로부미, 테라우치 총독 등 주요 인물과 친밀한 관계였고, 일본 황제와 한국 정부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개하였으며, 일본과 주변국과의 관계나 정세 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그의 Oriental antique objects of art collection이 뉴욕에서 전시되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도 12. <청자유개통형잔>
 총높이 : 9.8cm, 잔 높이 : 7.0cm
 입지름 : 10.4cm, 밑지름: 6.1cm
 Langdon Warner 1911년 일본
 보스턴미술관



도 13. <청자유개통형잔>
 총높이 : 9.7cm, 잔 높이 : 6.9cm
 입지름 : 10.4cm 밑지름 : 6.0cm
 인종 장릉 출토
 1916년 조선총독부박물관 구입
 국립중앙박물관

은 청자들이 일본의 고위 관료들에 의해 어떤 식으로 유출되었는지 경위를 알 수 있다.

둘째, 고려청자와 함께 출토된 도자 중에는 중국자기가 상당수 확인된다는 점이다. 미술관에서 작성된 원유물카드나 191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출판된 카탈로그 등의 자료를 확인하면 송대 자기가 고려자기로 기재된 경우가 적지 않다. 알렌이 1884년부터 1898년까지 조선에서 수집했던 80여점의 고려자기 컬렉션에도 12점 이상의 중국 정요백자, 경덕진 청백자, 복건성 백자 등이 섞여 있다. 보스턴미술관이 1911년 구입한 경우에서도 'Korean Pottery'로 기재되어 구입된 41점 중에는 중국 도자 16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고려자기로 생각했다는 것은 출토지가 고려시대 무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정요 백자, 경덕진 청백자가 많고 紫定이라고 하는 정요 갈색유자기나 요주요 청자도 포함되어 있다.(도 14) 1927년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구입한 고려자기에서도 구입 당시에 '紫定' 완과 병,



도 14. <청백자향로>,복송 경덕진
 1911년 'Korean Pottery'로 구입,
 보스턴미술관



도 15. 칠량면 항구 (현 칠량면 봉항리 추정)
 'The Port of Shichi-ryoji', 1930년 이전

한 역사적 배경, 기법, 기형, 문양, 유약, 가마터, 용어 등 전반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사진 도판 157장이 실려서 미국에서 진행된 고려청자 연구의 집대성이라고 할 만하다.⁴⁰⁾

둘째, 고려청자가 일본·중국 자기와 장식 및 제작 기술에서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896년에 출판된 부셀의 책에서도 고려자기의 ‘翡色’을 ‘Kingfisher green’으로 해석하여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10년대 이후 품질이 우수한 고려청자들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한국도자를 평가하는 기존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보스턴미술관에서 1911년에 구입한 고려자기를 실견한 이후에 발표된 ‘Korean Pottery’라는 글은 고려청자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유약(glaze), 태토(clay), 문양 소재(decoration), 장식 기법, 기형(form) 등으로 나누어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입된 <청자죽문병>을 형태, 대나무의 섬세한 표현, blue-green의 유색 등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작품으로 꼽았다.⁴¹⁾ 1915년에 Samuel T. Peters가 54점의 한국 도자를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기증한 직후에도 임시 전시회가 열리고 고려청자에 관한 두 편의 글이 연달아 게재되는 등 고려청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⁴²⁾

Lorraine D'O Warner는 클리브랜드미술관에 기증된 Worcester R. Warner(1846~1929) 컬렉션의 고려청자를 실견하고 고려청자 유약의 깨끗함과 푸르면서 녹색빛[greenish-blue]을 띠는 투명함, 회색빛의 태토, 번조 받침 등의 특징이 중국 청자와 쉽게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서술하였다. 특히 여러 개의 상감청자 도판을 제시하여 상감기법의 특

표 3. 고려청자 관련 논문 목록 (1910년대~1930년대)

	지은이	논문제목	정기간행물	간행처	시기
1	F.S.K.	Korean Pottery	Museum of Fine Arts Bulletin, Vol.9, No.54	Museum of Fine Arts, Boston	Dec. 1911
2	Durr Friedley	Korean Potter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Vol.10, No.3	Metropolitan Museum of Art	Mar. 1915
3	Mrs. Langdon Warner	Grave Pottery of the Korai Dynasty	Bulletin of the Pennsylvania Museum, Vol.16, No.61	Pennsylvania Museum	Apr. 1918
4	Lorraine D'O Warner	Korean Grave Pottery of the Korai Dynasty	The Bulletin of the Cleveland Museum of Art, Vol.6, No.3	Cleveland Museum of Art	Apr. 1919
5	A. I. Ludlow	Pottery of the Korai Dynasty (924-1392)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ume XIV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1923
6	H. G. Henderson	Korean Ceramic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Vol. 22, No. 6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Jun. 1927
7	Lorraine O. Warner	Korai Celadon in America	Eastern Art Vol. II	"	1930
8	Muneyoshi Yanagi	A Note on the Pottery kilns of the Korai Dynasty	Eastern Art Vol. II	The College Art Association	1930

창성과 그 기원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는 등 실물 자료를 통한 고려청자의 특징을 강조하였다.⁴³⁾

40) Lorraine O. Warner, "Korai Celadon in America", Eastern Art Vol.II (PHILADELPHIA : the College Art Association, 1930), pp. 59~61.

41) F.S.K., "Korean Pottery", Museum of Fine Arts Bulletin, Vol.9, No.54 (1911), pp. 63~64.

42) Durr Friedley, "KOREAN POTTER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Vol. 10, No. 3 (1915), pp. 43~45.

43) Lorraine D'O Warner, "Korean Grave Pottery of the Korai Dynasty", The Bulletin of the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고려청자 중에서 음양각으로 얇은 부조감이 있고 반투명의 회녹색(gray-green) 유약이 두껍게 시유된 <청자양각연화·황촉규문매병>을 가장 아름다운 고려청자로 선택하였다. 고려청자의 품질을 판단하는 조형적인 기준을 유약과 유색에 우선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상감기법을 가장 전형적인 한국의 장식기법으로 인정하고, 철화청자가 중국 송대 자주요 자기와 유사하다는 의견, 유약의 실투성에 따른 유색의 차이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⁴⁴⁾

셋째, 고려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의 제작지와 서궁 『고려도경』의 ‘定器制度’와 관련한 문구의 해석 문제이다. 1896년에 출판된 부셀박사의 『Oriental Ceramic Art』에서 송대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기본적으로 인용되는 ‘器皿 3 陶尊’에서 翡色의 의미, 定器制度, ‘陶爐’의 狻猊出香, ‘水瓮’, ‘燕禮·燕儀’에서 靑陶器, 曹昭의 『격고요론』에서 ‘고려요’ 내용도 영문으로 번역되었다.⁴⁵⁾ 1910년대 이후에 고려청자 관련 논문에서 『고려도경』의 내용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고려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의 제작지와 ‘정기제도’의 해석이 가장 논쟁거리였다.⁴⁶⁾ 서궁의 『고려도경』에서 定器制度를 “모두 정요 자기의 형태를 따랐으므로 언급만하고 그리지 않았으며…”라고 해석하였다.⁴⁷⁾ 이 문헌 내용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일부 연구자는 고려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는 정요 자기를 따라서 만들어진 고려자기로 보았고, 또는 일반적인 백자는 고려에서 제작된 것으로, 품질이 좋은 백자는 중국의 정요 자기로 판단하기도 하였다.⁴⁸⁾ 다른 연구자들은 정요 자기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은 청자이고 고려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는 중국에서 수입된 정요자기라고 판단하였다.⁴⁹⁾

V. 맺음말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고려청자가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유입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미국에 유입된 고려청자가 어떻게 인식되고 연구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근대 미국에서 고려청자의 위상과 연구 성과 등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쉽지 않았고 가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견 당시의 유물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많

Cleveland Museum of Art, Vol.6, No.3 (1919), pp. 46~52.

44) H. G. Henderson, "Korean Ceramic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Vol. 22, No. 6 (1927), pp. 172~175.

45) 부셀박사는 1868년 북경 주재 영국공사에 의사로 파견된 이후에 32년 동안 중국에 머물렀으며, 중국어와 한문에 능통했고 중국 미술 특히 도자에 조예가 깊었으며, 관련 서적을 다수 출판하였다. 그는 Victoria and Albert Museum, 대영박물관의 중국 도자 구입을 담당하였고,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중국 미술 관련 전시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46) John Platt, "Ancient Korean Tomb Wares", The Burlington Magazine for Connoisseurs, Vol. 20, no. 106 (1912), pp. 222~230.

47) 『高麗圖經』 第32卷 器皿 3, 陶尊條 “陶器色之靑者, 麗人謂之翡色, 近年以來, 制作工巧, 色澤尤佳, 酒尊之狀如瓜, 上有小蓋, 而爲荷花伏鴨之形, 復能作盤樑栝花瓶湯殘, 皆竊倣定器制度, 故略而不圖, 以酒尊異於他器, 特著之.

48) S.C.B.R., "Recent Accession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Vol. 11, No. 2 (1916), p. 46.

49) John Platt, "Korean Pottery", The Burlington Magazine for Connoisseurs, Vol. 36, no. 205 (1920), pp. 202~203.

았고, 무엇보다 한국도자에 대한 인식이 고려청자로 인해 변화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1900년대 이후에 양질의 고려청자가 미국에 대거 유입되고, 고려청자 컬렉션이 형성되면서 한국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견해가 사라지고 중국이나 일본 도자와 다른 독창적인 조형성과 제작 기술적인 면에서도 매우 발전하였다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내 고려청자 컬렉터나 연구자들도 대부분의 고려청자가 무덤에서 도굴되거나 불법적으로 탈취되는 예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많은 논문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판매, 전시, 연구되는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고려청자가 민족지학적 관점에서 수집되던 조사물에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고가의 수장품으로,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변화하면서 한국도자에 대한 근대 미국의 인식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분위기는 1910년대에서 193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지만 그 이후에 점차 고려청자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1950년대까지 새로운 연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해외 소장 한국문화재의 소개 파악이나 반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근대 미국에서 고려청자 컬렉션과 관련하여 뜻하지 않게 중요한 자료들이 많았고, 본 발표자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자료들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주제발표2

강진 청자요지의 조사 현황과 성과



조은정 고려청자박물관 학예연구사

강진 청자요지의 조사 현황과 성과

조 은 정(고려청자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II. 일제강점기 요지조사의 배경과 인식의 한계

1. 日人 연구자들의 고려청자에 대한 인식
2. 일제강점기 강진 청자요지의 조사 현황

III. 광복이후 조사내용과 가마 구조의 특징

1. 광복이후 발굴조사 성과
2. 강진 청자가마 구조의 특징

IV. 강진 사당리 출토유물의 종류와 특징

V. 맺음말

I. 머리말

강진의 청자요지는 우리나라 고려청자의 역사를 대변하는 곳이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동안 많은 발굴조사와 지표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물은 한국도자사 연구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도자사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의 자료는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보고서는 1960~1970년대 국내 학자들에 의한 최초의 발굴조사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그동안 빈칸으로 남아있던 발굴조사 과정의 큰 공란이 메워진 셈이다. 당시 조사는 사당리23호 요지와 사당리41호 요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고, 특히 사당리23호 요지에서는 고려청자의 각 시대를 특징짓는 標式기종과 銘文청자, 다양한 청자의 시문기법과 백자까지 고려청자를 총망라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본 발표는 201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간한 강진 사당리 발굴조사보고서와 특별전을 계기로 100년 역사의 강진 청자요지 조사자료 정리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일제강점기의 강진 청자요지 조사 참여자들과 그들의 조사, 연구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행히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당시 자료를 일부 수집할 수 있었고, 최근에 구축된 조선총독부문서 DB 또한 단편적이거나 관련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제강점기라는 정치적 상황과 초보적인 발굴조사 단계였다 하더라도 해석이 덧붙여지기 전 발굴이나 지표조사 자료는 있는 그대로 1차 자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요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사 흐름에 대해서는 본 발표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다음으로는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강진 지역의 가마 구조와 사당리 23호 발굴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출토유물의 특징을 소개하는 것으로 광복이후 조사 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II. 일제강점기 요지조사의 배경과 인식의 한계

조선시대에는 백자로의 이행이라는 큰 역사적 흐름을 따라 고려시대와 같은 청자를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자 생산지로서 강진에 대한 인식은 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청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조선시대 후기에도 이어졌는데 다음 몇 가지 기록에서 단면을 찾아 볼 수 있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김우희(金友喜)에게서 수선화 분재가 심어져 있는 화분 하나를 선물받았는데 이를 ‘高麗古器’라고 기록하고 있다.⁵⁰⁾

간혹 고려시대 분묘나 건물지에서 고려청자가 출토되기도 하여 문헌에 기록된 예가 있다. 조선시대 말 이유원(李裕元)은⁵¹⁾ 『林下筆記』에서 고려 후기 문신이었던 안향(安珦, 1243~1306)의 집터에서 습득했다고 전해지는 청자에 대해 학 여섯 마리와 피어오르는 구름송이 열여덟 개를 그렸는데 모두 분청(粉靑)을 사용했다고 기록하였다.⁵²⁾ 기술된 내용으로 보면 운학문이 상감된 매병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9세기 말 당시 일본사람들의 고려자기 애호풍조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甲申年(1884년)에 고려 왕릉 출토된 운학문 반상기 한 벌 값이 700냥이었고, 고려시대 당시는 원(元)나라 장인(匠人)들이 왕래했기 때문에 그 만듦새가 여느 것과는 다르다고 평하였다.⁵³⁾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기종의 명칭과 문양, 재료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예라고 볼 수 있다.

1. 日人 연구자들의 고려청자에 대한 인식

조선시대 말부터 시작된 정치적 격변기속에서 한국미술에 대한 연구도 제국주의적 식민사관 아래 日人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강진 청자요지의 존재가 처음 알려지고 조사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관점을 감안하고 본다면 당시의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일제강점기에 강진 청자요지 조사는 주로 李王職博物館과 總督府博物館에서 실시했으며, 이때 참여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야기 쇼자부로(八木獎三郎, 1866~1942)⁵⁴⁾, 고모리 진(小森忍, 1889~1962)⁵⁵⁾, 나카오 만쥬(中尾万三, 1882~1936)⁵⁶⁾, 노모리 켄(野守 健, 1887~1970)이다.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 후 동경제국대학 이과대학 인류학교실을 중심으로 점령지

50)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一集 詩文集 第六卷: 秋晚金友喜香閣 寄水仙花一本 其盆高麗古器也

51)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주청사로 청나라를 방문한 후 인천 개항을 주장한 개화파로서 전권대신으로 제물포조약에 조인한 인물이다.

52) 李裕元 『林下筆記』 34卷 華東玉繆編 高麗器: 斗室宅 舊蓄高麗秘色瓷尊 爲安文成公宅遺墟所得 可寶也 養研老人 借用八年而還 安文成 嘗掛晦菴像 遂號晦軒 甘露寺詩曰 日暖庭花藏淺綠 夜涼山月送微明 憂民未得滌塗炭 欲向蒲團寄半生 史稱憂國傷民之意 溢於辭也 此尊 卽先生舊物 而繪鸞鶴六 朶雲十八 皆用粉靑 余蓄瓷器 以粉靑青畫畫文 麗俗之用采 皆以粉靑可知也

53) 李裕元, 『林下筆記』 35卷 薛荔新志: 倭人 好高麗磁器 不惜準價 甲申之間 松人掘古冢 至陵寢 得玉帶 又得磁盤床器一具 畫雲鶴 價直七白金 其時元朝匠人往來 故其制異於常制

54) 1913년에는 鷄龍山, 永同, 秋風嶺, 高靈, 金海, 東萊, 慶州, 釜山, 迎日灣을, 1915년에는 廣州 南漢山, 北漢山 청자요지, 翁津 분청요지, 평남 安靜里 분청요지, 江華島 東幕 등을 조사했으며, 그 조사결과를 간단하게 『陶磁』 10권 2호(八木獎三郎, 「南朝鮮古窯調査報告」, 東洋陶磁研究所, 1938. 9. pp.1~24.)에 정리하였다.

55) 고모리 진은 1910년 京都市立陶磁器試驗場에 들어가 도자공업기술 기초연구에 종사하면서 중국고대도자기를 연구하였다. 小森陶磁器研究所는 중국 고도자 연구, 仿製, 유약 응용, 각종 건축재료와 함께 장식품을 제작 판매했으며, 수집품을 진열하여 공개하거나 제작품을 ‘도야회’ 이름으로 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56) 약학박사이면서 만철요업시험장 기사였으며, 상해자연과학연구소 한약부장 등을 지냈다.

인 요동반도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대만, 조선 등의 해외조사를 실시했다.⁵⁷⁾ 수집된 자료는 인류학교실 진열실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야기 쇼자부로는 동경제국대학 이과대학 인류학교실 출신 고고학자로, 李王職에 근무하면서 1913년부터 1917년까지 국내의 가마터를 조사하였다. 1914년 강진 청자요지 조사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했다.

야기 쇼자부로는 우리나라의 미술 관념을 불교와 연관시켜 성장, 쇠퇴해 간 것으로 파악하여 고려시대를 최전성기로 보았으며, 한국 도자사에서 고려시대에만 정교한 제작기술이 발달한 것으로 보았다.⁵⁸⁾ 이러한 ‘조선문화 정체론’, ‘조선예술쇠망론’의 견해는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1867~1935)와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1859~1935)⁵⁹⁾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다만 우리나라 미술의 황금기를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로 보는 시각만 달랐을 뿐이다. 1901년 야기 쇼자부로는 한국의 도자기를 처음으로 통사적 관점에서 분류, 정리하였으나 그 관점은 철저히 제국주의적 식민사관에 기반한 것이었다. 역사적 분류와 기술적 분류로 구분하고, 조선의 도자기 중에서 미술품의 부류에 속할만한 것은 靑磁, 白磁, 象眼入り 세 종류라고 하였다.⁶⁰⁾ 그는 1914년 4월 강진 청자요지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인물이다. 당시 『毎日申報』 기사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고려청자 생산을 전면 부인하는 중국수입설은 부정했지만, 고려청자 전성기에 고려내의 자체적인 기술 발전 가능성은 배제하고 중국 청자와의 형태, 문양의 유사성을 들어 중국 宋代 장인이 고려에 와서 직접 기술을 전수했다고 주장했다.⁶¹⁾

20세기 전반 일본인들의 도자기 연구 모임으로 甸雅會, 品陶會, 陶磁器研究會, 彩壺會, 朝鮮陶器研究會, 啓明會, 好陶會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한국 도자사 연구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단체는 도아회와 채호회이다.

먼저 도아회는 고모리 진(小森忍)이 1917년 중국 대련시(大連市)에 있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중앙시험소 요업과 연구부 주임으로 발탁되면서 시험소의 일부를 빌려 '小森陶磁器研究所'를 창설하고 10명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결성한 중국 도자기 연구 모임이었다. 1921년 정식 발족돼 『甸雅集』이란 책자도 간행했다. 뒤에서 살펴볼 나카오 만쥬(中尾万三, 1882~1936)는 10명의 발기인 중에 한 사람이자 간사를 담당하였다.

도아회는 중국 도자기 연구 모임이었지만 중심인물이었던 고모리 진은 자신이 중국 각지의 요장과 도자기를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고려청자에 대한 글도 남겼다. 그는 우리나라 도자사의 황금기를 고려시대로 보는 조선예술 쇠망론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⁶²⁾ 1921년,

57) 全東園, 「近代日本の『朝鮮文化財』調査研究に關する一考察-1900年代初頭における八木獎三郎の『韓國調査』を中心に-, 『日本語日本学研究』 vol.2, 東京外國語大学 國際日本研究センター, 2012. p.51.

58) 八木獎三郎, 「韓國の美術」, 『国華』 169, 1904년 6월. 같은 제목의 논문이 『時事新報』 (1902년1월1일), 『考古界』 (1902년 1월, 1904년 7월), 『日本美術』 (1905년)에도 실렸다.

59) 1907년 창경궁에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을 설치하면서 도자기, 금속기, 옥석류 등 박물관 소장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고미야 미호마쓰는 1907년 9월 23일 宮内府 차관, 11월 8일 임시 帝室및國有財産調査局 임시위원, 11월 30일 帝室財産整理局 長官에 임명됐으며, 1911년에는 李王職博物館 1대 次官(1911~1917)을 지낸 사람이다. 1907년 宮内府의 박물관조사촉탁으로 부임하면서 스에마츠 구마히코(末松熊彦), 시모고리아마 세이이치(下郡山誠一, 1883~?)와 함께 박물관 소장품 수집에 직접 관여하였다.

60) 八木獎三郎, 「韓國古代の陶器模樣」, 『東京人類学会雑誌』 185, 1901. 8. pp. 450~451.

61) 『毎日申報』 1914년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기사 ‘高麗靑磁窯 新發見 李王職博物館 主任事務官 末松熊彦氏談’ 당시 발굴단의 대표는 李王職의 사무관이었던 스에마츠 구마히코(末松熊彦)였으나 실질적으로 발굴을 진행하고 도자사적 관점에서 신문기사 자료를 제공한 인물은 야기 쇼자부로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또한 강진에서 청자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로 지리적으로 한반도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전란에 상관없이 陶土와 薪材가 풍부했고, 해안에 인접하여 선박을 이용한 청자의 운송이 편리했던 점을 들었다. 그리고 精美한 청자와 조각이 뛰어난 청자를 만들거나 혹은 상감청자를 만든 가마는 官窯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1923년에는 강진 대구면 당전요지에서 출토된 최상의 청자를 중국 송대 용천요 청자와 유사성을 언급하였다.⁶³⁾ 1925년에는 중국 여러 지역의 청자와 고려청자를 태토의 색, 번조상태(산화/환원), 유약의 용융점(1000℃이상/이하)을 기준으로 기술적인 분류와 설명을 시도하였다.⁶⁴⁾

고려청자의 연원이 중국 월주요에서 시작했고, 태토 색과 질은 중국 수내사요, 용천요와 유사하며, 철분이 많다는 점은 가요, 수내사요와 비슷하다고 보았다. 특히 유층이 매우 얇고 투명해서 유약 아래의 문양이 선명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⁶⁵⁾

도아회보다 앞선 1914년 동경제국대학 공과, 문과, 이과 등의 각과 교수들과 조교가 중심이 되어 문과대학의 심리학교실내에 ‘도자기연구회’ (1914~1923)를 결성했고, 이 연구회가 모체가 되어 생겨난 것이 채호회이다.⁶⁶⁾

나카오 만조는 고고학적인 요지조사나 제작기술적 관점에서 벗어나 미술사적 접근 방법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자기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⁶⁷⁾ 같은 해 채호회 초청 강연에서 처음으로 고려청자의 시기구분을 시도하면서 여러 명문 청자와 함께 당시 발견된 己巳, 庚午, 癸酉, 甲戌, 壬午, 丁亥 등 干支명 청자에 대해서는 제4기(고려 충숙왕대~조선)인 1329~1347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분석하였다.⁶⁸⁾ 강진 당전리 청자에 대해 조소(曹昭)의 『격고요론(格古要論)』 내용에 근거해 고려청자가 중국 용천요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또한 고려청자에 대해 시문기법별로 無紋(凸刻, 凹刻, 穢彫), 象嵌(白, 黑, 黑白), 釉裏紅, 繪高麗, 三嶋手로 좀 더 세분화된 분류를 시도하였다.⁶⁹⁾ 그는 1925년 연초에 고모리 진,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와 함께 강진 청자요지를 답사하기도 했다.

1910년대와 1920년대 전반에는 강진 청자요지에 대한 현황과약과 발굴조사가 중심이었다면, 1925년 나카오 만조를 시작으로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명문이 있는 청자나 생몰년 추정이 가능한 승려의 부도 출토 청자와 같은 구체적인 편년 유물, 청자와 관련된 중국과 고려의 문헌사료 연구로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⁷⁰⁾

62) 小宮三保松, 「朝鮮藝術の衰亡原因及其の將來」, 『朝鮮彙報』, 京城:朝鮮總督府(外務省通商局), 1915. 8.
 63) 小森忍, 「昌德宮と武英殿の古陶磁器」, 大日本窯業協會雜誌 29(344), pp.263~268. 1921.; 小森忍, 『甸雅堂談圃 支那古陶窯錄』, 大連:甸雅會, 1923. p.34.
 64) 小森忍, 「青磁に就ての考察」, 『甸雅集』 第6, 大連:甸雅會, 1925. p.2.
 65) 小森忍, 위의 논문(1925년), pp.10~11.
 66) 채호회는 일본 도자기 중심의 연구단체로 1924년에 東洋陶磁研究所를 설립하고, 1929년부터 『陶磁』라는 잡지를 발행하였다. 특히 강연회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면의 연구자를 초빙하여 열렸는데 이때마다 도아회와 마찬가지로 강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출판했다. 木田拓也, 「大河内正敏と奥田誠一 陶磁器研究会 / 彩壺會 / 東洋陶磁研究所—大正期を中心に—」, 『東洋陶磁』 42, 2013. 3. pp.15~35.
 67) 나카오 만조는 1925년에 여러 편의 글을 발표했다. 도아회 강연에서는 21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西域系支那古陶磁の考察」이라는 논문을 실었고, 채호회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기도 했으며, 『滿蒙』이라는 잡지에 4월과 6월 2회에 걸쳐 「高麗古陶磁考」 제목의 글을 실기도 했다.(中尾万三, 「西域系支那古陶磁の考察」, 『甸雅集』 第6, 大連:甸雅會, 1925.4): 同著, 「高麗青磁の窯址と其製作品」, 彩壺會講演錄, 靑山書店, 1925.; 同著, 「高麗古陶磁考」, 『滿蒙』 6권 59호-62호, 1925.)
 68) 나카오 만조는 고려자기를 4기로 구분하였다. 제1기는 高麗圖經시대~毅宗代(高麗翡色時代), 제2기는 毅宗代~忠烈王代(象嵌青磁時代), 제3기는 忠烈王代~忠肅王代(中國南北窯混淆時代), 제4기는 忠肅王代~朝鮮(雜窯時代)로 보았다. 中尾万三, 「高麗青磁の窯址と其製作品」, 彩壺會講演錄, 靑山書店, 1925. pp.27~30.
 69) 中尾万三, 「高麗青磁の窯址と其製作品」, 彩壺會講演錄, 1925. pp.1~33.
 70) 대표적인 것이 1934년 東洋陶磁研究所에서 高麗특집호로 발간한 『陶磁』 6권6호(1934)이다. 여기에는 中尾万三, 「年代の極めて明なる高麗象嵌青磁彫三島」; 奥平武彦, 「高麗の畫金磁器」; 尾崎洵盛, 「宣和奉使高麗圖經」; 野守健, 「扶安郡に於ける高麗陶窯址」; 小川敬吉, 「大口面窯址の青瓷二類」; 加藤灌覺, 「高麗青瓷欸銘入の傳製品と出土品に就て」 등의 논문이 실려 있다. 이외에도 역사학자였던 오다 쇼고(小田省吾, 1871~1953)는 『宣和奉使高麗圖經』, 『高麗史』, 『東國李相國集』, 『牧隱詩藁』, 『世宗實錄』 地理志, 『經國大典』 등 문헌 기록을 자세히 다룬 『朝鮮陶磁史文獻考』(學藝書院, 1936)라는 책을 발간했다.

일제강점기의 본격적인 도자사 연구로는 나카오 만죠의 『朝鮮高麗陶磁考』(學藝書院,1935)와 노모리 켄의 『高麗陶磁の研究』(東京:清閑舎, 1944)이 있다.

나카오 만죠의 『朝鮮高麗陶磁考』는 기존에 발표된 세 편의 논문을 모아서 발간한 것이다.⁷¹⁾ 서문에서 그는 스스로 문헌사적 접근과 공예미술의 감식안이 부족하다고 밝혔으나 그렇기 때문에 유물을 대상으로 事實에 근거한 미술사적 연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와 송 양국의 청자와 문헌자료 비교, 월주요와 여요와의 영향관계, 翡色청자, 象嵌청자, 銅畫청자, 鐵畫堆花鐵彩象嵌 기법, 尙藥局명·干支명 청자, 청자瓦, 蒲柳水禽文 등으로 분류하는 등 진전된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강진에 요업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로 남중국 절강지역의 자기 제작기술을 가진 장인이 직접 건너온 것으로 보았으며,⁷²⁾ 이는 강진이 왕실과는 먼 변방으로 인식되어 吳越國의 장인들이 새로운 문물을 가져온 것에 거부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 혼란기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고려자기 시기구분의 시작을 『高麗圖經』 시대부터 설정하는 일관되지 않은 서술을 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民窯로 시작해서 명성을 얻은 후 官窯가 성립되었고, 상감청자가 가장 발달한 시기는 毅宗代로 설정하였다.

강진 대구면에서 출토되는 鐵畫, 鐵白畫, 鐵彩象嵌 청자와 干支銘 청자가 중국 北方窯의 영향이라고 설명하면서, 鐵畫, 鐵白畫, 鐵彩象嵌 청자를 忠烈王代부터 忠肅王代에 이르는 제 3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당전리요에서 출토되는 牡丹, 蓮花, 鸚鵡 등 섬세한 조각과 비색 유약의 청자는 徐兢이 기록한 ‘制作工巧色澤尤佳’에 해당하며, 중국 定窯나 南宋의 修內司窯 청자와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⁷³⁾ 그리고 당전리 요지에서 출토되는 치밀하고 내화도가 높은 갑발에 주목하였다.

나카오 만죠의 견해는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과 노모리 켄(野守健)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국내 학자로서 초대 국립박물관장을 지냈던 고유섭(高裕燮)은 1939년 『朝鮮の靑瓷』에서 나카오 만죠가 지적한 당전리요의 특징에 대한 견해를 수용하였고, 『高麗圖經』에 상감청자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당전리요에서 상감청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상감청자의 발생 시기를 1124년 이후로 추정하였다.⁷⁴⁾

노모리 켄은 조선총독부박물관 촉탁으로 근무하면서 1928년 도요지 분포도 제작을 목적으로 강진 청자요지조사에 참여하였다. 강진 청자요지를 別로 총 105개소(용운리 39개소, 계율리 28개소, 사당리 30개소, 수동리 3개소, 삼흥리 5개소)를 확인하고, 別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요지를 묶어 手法, 문양, 유색, 기종, 변조받침, 비고 順의 항목으로 나누어 특징을 요약 정리했다. 기형의 변화, 청자의 품질 등을 근거로 청자의 최전성기 이전, 이후, 말기로 요지의 선후관계를 편년하고, 중심 요지의 이동경로를 개략적으로 서술하였다.⁷⁵⁾

용운리는 중국 절강성 상림호 월주요지 청자와 유사한 해무리굽이 확인되기 때문에 청자 및 청자상감 최전성기 이전인 淳化4年(993)명 호와 가까운 시기로 추정하였다. 계율리 요지는 용운리와 연속되거나 혹은 최전성기에 해당, 혹은 최전성기 다음, 또는 그 이후 등 운

71) 「高麗古陶磁考」(『滿蒙』6권 59호·62호, 1925), 「年代の極めて明なる高麗象嵌靑磁彫三島」(『陶磁』6권6호, 1934), 「高麗靑磁尙藥局の香爐と白色推花紋の坑」

72) 中尾万三, 「高麗古陶磁考」, 『朝鮮高麗陶磁考』, 學藝書院, 1935. pp.17~21. 고려도경에서 알 수 있는 사신들의 항로(明州-白水-黃水-黑水洋-제주도-흑산도-군산-강화도-예성강-개성)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73) 中尾万三, 위의 책, pp.183~184.

74) 高裕燮, 『朝鮮の靑瓷』, 寶雲舎, 1939; 高裕燮 著·秦弘燮 譯, 『高麗靑瓷』, 乙酉文化社, 1954. p.80.

75)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東京:清閑舎, 1944.

영시기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사당리 요지와 수동리 요지는 상감청자를 제작하였으나 사당리는 청자 및 상감청자 최전성기와 그 이후에 운영되고, 수동리는 상감청자 최전성기보다 이후인 것으로 추정하여 선후관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운영시기의 선후관계를 통해 요지의 중심지역이 용운리→계율리→사당리(당전)→미산→백사 지역으로 이동해 갔을 것으로 보았다.⁷⁶⁾ 강진 사당리7호 요지와 부안 유천리12호 요지 출토품의 기형과 문양 등을 비교하여 유사성 지적하였다.⁷⁷⁾

2. 일제강점지 강진 청자요지의 조사 현황

일제강점기에 강진 청자요지에 대한 조사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수차례 진행되었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일제강점기 강진 청자요지 조사 현황

연 대	발굴 및 조사인원	수행기관	내 용
1914. 4.	末松熊彦, 八木獎三郎, 吉田哲, 鄭演教	이왕직박물관	당전, 미산, 향동, 용문 등 총 9기 가마 발굴, 유물 수습
1925. 年初	小森忍, 中尾萬三, 淺川伯教, 淺川巧	-	
1927. 10.	關野貞, 小田省吾	-	
1928. 6.	野守健, 少川敬吉	조선총독부박물관	도요지분포도 제작 목적 현장 조사 '正陵' 흑상감접시, 청자양각당초문 암막새기와 발견
1930.	柳宗悅	-	
1938. 5.	野守健	조선총독부박물관	고적보존령에 따라 지정준비를 위한 재조사
1939. 10. 18.			고적 제102호 지정

강진 청자요지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1913년이다.⁷⁸⁾ 그러나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진 것은 다음 해인 1914년 4월이었다. 李王職의 사무관이었던 스에마츠 구마히코(末松熊彦)⁷⁹⁾는 동생 스에마츠 다미히코(末松多美彦, 1876~?)에게서 강진 대구면에서 수습한 청자 편을 건네받으면서 청자요지의 존재를 알았고,⁸⁰⁾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76) 野守健, 앞의 책(1944), pp.172~174.

77) 野守健, 앞의 책(1944), p.183.

78) '高麗靑磁窯 新發見 李王職博物館 主任事務官 末松熊彦氏談' 1913년 3~4월 강진군 칠량면 순사였던 나카시마 기군(中嶋義重)은 이미 京城 재직시절에 청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관할지역 순찰 시에 대구면에서 청자 파편을 수습하여 강진 官民에게 보여주면서 강진군의 주요 인사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每日申報 1914년 6월 3일 기사)

79) 1904년 한국에 건너와 인천 米豆取引所 지배인으로 근무하다가 1908년에 궁내부(宮內府) 직원이 되었고, 1911년 李王職 주임사무관이 된 후 1941년까지 31년간 재직하였다.

80) 스에마츠 다미히코는 1907년부터 宮內府 內藏院 主事로 근무하면서 황실의 세전장원(世傳莊園)과 기타재산 을 관리하였다. 원래 강진군에는 경선궁[慶善宮,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英親王)의 생모인 순헌황귀비(純獻皇貴妃) 엄씨(嚴氏)의 거처]의 소유자가 있어서 매년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상례였었다. 그래서 1914년 3월 스에마츠 다미히코가 강진으로 출장을 오게 되었고, 대구면에서 청자 파편을 수습해 가지고 올라와 형에게 보여준 것이다. (每日申報 1914년 6월 3일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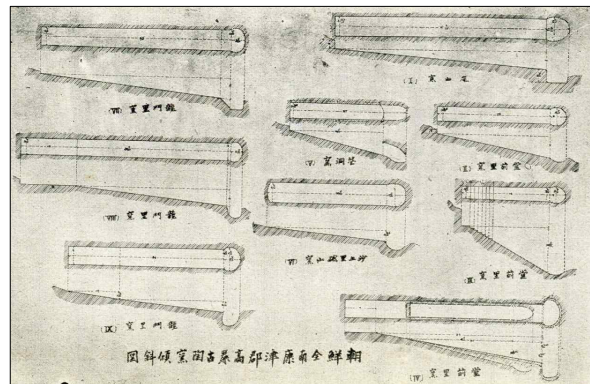
다고 하였다.

같은 지역의 당전리 제2요는 생산품이 대부분 상감청자이며 유약의 푸르름은 1요보다 못하나 대작을 만들고 상감기법을 구사한 것이 특징이라 하였다. 이외에 觀察山 아래 陶窯와 尾山窯, 龍門里窯, 盜賊山窯, 巷洞窯 중에서 巷洞窯는 가장 古式을 띠는 것으로 보았다. 堂前里 제1요, 2요는 전성기, 尾山窯는 같은 시기 또는 末期의 초기에 속하고 龍門窯가 最後와 같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요지들의 정확한 지번이나 소유자 내역이 없어서 현재 188개소의 요지 중에서 어느 요지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도 2. 1914년 4월 강진청자요지 발굴조사 사진

고모리 진은 자신 스스로가 유약 연구자였기 때문에 당전리에서 비색청자를 생산하게 된 이유를 가마의 경사각도에서 찾고자 하였다. 비색의 우수한 청자를 생산한 당전리요Ⅲ은 경사각도가 30도라는 비색을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비해서 환원소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비용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御用가마이지 않으면 좋은 색의 청자를 만들 수 없다고 보았다. 비색청자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유약 색이 어두워지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설명하였다.



도 3. 강진군 고려고요지경사도(1914년 작성)

그러면서 1914년 스에마츠 구마히코 조사단이 작성한 9기의 가마 실측 도면을 인용하여 가마구조를 자세히 설명했다.(도3)<표2> 그러나 환원소성의 비효율성만을 강조하려던 나머지 가마의 경사각도에만 치중했고, 아쉬운 점은 작은 책자에 실린 이미지로는 가마의 전체 길이와 폭에 대한 숫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매일신보와 고모리진 논문에 기재된 가마의 명칭이 달라서 (도3)의 실측도면으로만 청자가마 구조를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가마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도3) 청자요지 실측도면에 대한 고모리 진의 설명(1925년)

번호	명칭	위치	경사각도	유물특징
I	미산요		4도	
II	당전리요		10.5도	태질이 치밀, 유색 양호, 상감 편이 많음

Ⅲ	당전리요	당전리 중앙	30도	가장 우수한 고려비색 청자, 일부 상감청자도 있음
Ⅳ	당전리요	당전리 동편 가마 3개 확인	9도~14도	Ⅱ당전리요와 유사하거나 미산요와 같은 조질품도 많음
Ⅴ	항동요 (=용운리요)		11도	미산요(Ⅰ)와 유사한 조질품이 많음
Ⅵ	沙丘里 砥山窯	칠량면	5도	고려청자라기보다 분청사기라고 할 만한 것이고 청색 느낌이 약함
Ⅶ	용문리요	당전리와 항동 중간 =용문리 서쪽	5.5도	파편은 분청사기 품의 것이 많음
Ⅷ	용문리요	용문리 중앙	6도	미산요(Ⅰ)와 유사한 조질 고려청자인데 오히려 분청사기라고 해야 할 종류임
Ⅸ	용문리요	용문리 동쪽	하부: 5.7도 상부: 7도	파편은 Ⅰ, Ⅶ, Ⅷ 등과 같음

한 가지 고모리 진의 논문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운영되고 있었던 칠량면의 도기가마에 대해 조사 내용을 남겼다는 것이다.(도 4) 칠량면 도기가마는 전체 길이는 60尺(18.18m), 가마 폭은 6尺(1.8m), 높이는 하부가 6尺5寸(1.97m), 상부가 4尺5寸(1.36m), 경사도는 대략 하부는 8.5도, 상부는 9도 내외였다고 한다.⁸⁸⁾ 연료는 소나무 가지를 사용하고, 1회 약 7,800근(4.68톤)을 소비하며, 소성온도는 각 부분마다 다르지만 대략 1,100℃ 내외라고 기술하였다.



도 4. 칠량면 도기가마(1925년)

충독부박물관은 1928년 6월 도요지 분포도 작성을 위해 노모리 켄과 오가와 게이끼(少川敬吉, 1882~1950)를 파견하여 강진 청자요지를 조사하게 하였다. 또한 노모리 켄은 1938년 5월 고적보존령에 따라 지정준비 업무 차 실시한 제조사에도 참여하였다. 1939년 10월 18일 충독부박물관은 노모리 켄 일행이 조사 보고한 대구면의 100개소 청자요지 분포도를 기초로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第1條에 의거해 ‘강진 대구면 도요지’를 古蹟 102號로 지정하였다.⁸⁹⁾

노모리 켄은 100개소의 요지중에 계율리 25호 요지를 발굴 조사하여 그 구조에 대해서 사진과 도면으로 기록하였는데, 가마 바닥에 갑발 5개를 가로로 놓아 낮은 계단을 만든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길이 16.3m, 폭 1.1~1.3m의 細長한 單室窯라고 설명하였다.⁹⁰⁾(도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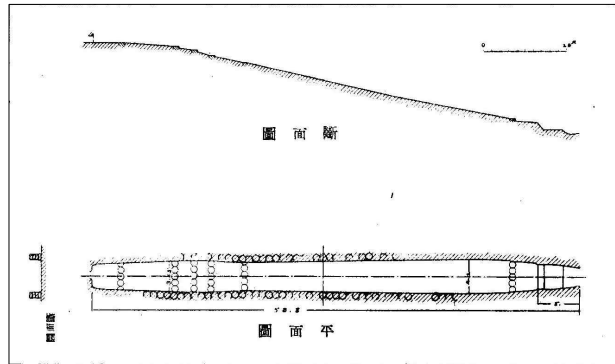
88) 1902년 일본 계량법에 따라 1尺 = 30.303cm, 1寸=3.03cm, 1分=0.3cm이다. 1902년에는 궁내부(宮內府)에 도량형을 관장하는 평식원(平式院)을 설치하고, 1905년에는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그런데 1909년 일본이 자국의 도량형을 가져와 우리의 전통적 단위와 혼용해 사용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미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광복 후이다.

89) 朝鮮總督府官報 第3825號(1939年) pp.179~181. 노모리 켄 일행이 조사한 것은 대구면 100개소 칠량면 삼흥리 5개소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삼흥리 5개소는 고적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사당리, 계율리, 용운리, 수동리의 87개 필지에 해당하며, 필지 지번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청자요지는 사당리에서 1호~30호, 용운리에서 1호~39호, 계율리에서 1호~28호, 수동리에서 1호~3호 총 100개소가 지정되었다.

90)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清閑舎, 1944, p.231.



도 5. 계율리25호 가마



도 6. 계율리25호 가마 도면(노모리 켄 실측)

사당리7호 요지에 대해서는 상감청자 제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폭1.8m, 길이7.2m, 깊이1.0m의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철화 '成'銘 편 26점, 음각 '御件'銘 편, 완의 내면에 압출양각기법의 버드나무와 동자와 외면에는 철채기법이면서 口緣은 露胎시켜 覆燒한 편, 銅畫기법 편 등을 확인하였다.⁹¹⁾ 특히 사당리9호 요지에서는 陶土를 채굴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몇 장의 당시 발굴사진을 통해 필요에 따라 가마를 확인하기 위해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고, 가마 유구 조사는 가마구조에만 초점을 맞춰서 좌우측 벽면과 아궁이, 가마바닥만을 조사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조사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단면도는 가마바닥의 종단면(縱斷面)만을 표시하여 자연 경사면을 어느 정도 깊이로 굴착했는지에 대한 횡단면(橫斷面) 정보가 없다.

일제강점기의 강진 청자요지 공식적인 현지조사는 이왕직박물관의 1914년과 조선총독부박물관의 1928년 조사이다. 그런데 이 공식기관의 조사 결과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 1927년도 충남계룡산도요지조사복명서, 1933년 전북 부안도요지조사복명서 자료는 자세한 설명과 발굴사진이 첨부되어 남아 있으나, 1910년대부터 고려청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한 강진 청자요지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1914년 조사는 매일신보와 고모리 진의 논문에서, 1928년 조사는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지정목록과 노모리 켄의 책에서 일부 찾을 수 있는 정도이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고적조사 결과를 삭제, 은폐했거나 당시 출토된 많은 유물을 불법적으로 반출했기 때문에 조사보고서가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Ⅲ. 광복이후 조사내용과 가마 구조의 특징

1. 광복이후 발굴조사 성과

광복 이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강진 청자요지는 1963년 문교부고

91) 野守健, 위의 책, pp.157~162.

시 제174호에 사적 제68호로 지정되었다.⁹²⁾ 국립중앙박물관은 1963년부터 광주 무등산 충효동에서 분청사기 요지를 시작으로 전국의 요지를 조사했고, 강진 청자요지는 다음해인 1964년부터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강진 청자요지는 대구면 용운리에 75개소, 계율리는 59개소, 사당리는 43개소, 수동리는 6개소, 칠량면 삼흥리에 5개소 총 188개소의 요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4년부터 최근 2012년 사당리43호 발굴조사까지 총 6차례 발굴이 이뤄졌으며, 강진 대구면과 칠량면 일대 전체 청자요지에 대한 대규모 지표조사도 7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두 차례 실시되었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 3> 광복이후 강진 청자요지 발굴 및 지표조사 현황⁹³⁾

	시기	성격	요 지	결과	조사기관
1	1964~1970년	발굴조사	대구면 사당리23호	건물지	국립중앙박물관
2	1973~1977년	"	대구면 사당리41호	가마 1기	국립중앙박물관
3	1979~1980년	지표조사	강진 청자요지	153개소	"
4	1981~1982년	발굴조사	대구면 용운리9호:10호	가마 4기	국립중앙박물관
5	1991~1992년	지표조사	강진 청자요지	188개소	강진군·해강도자미술관
6	2001~2002년	발굴조사	칠량면 삼흥리1호:3호:4호	가마 3기	국립광주박물관 호남문화재연구원
7	2012년	"	대구면 사당리43호	가마 1기	민족문화유산연구원
8	"	"	대구면 용운리63호	"	"

① 사당리23호 발굴조사

국내 학자들에 의한 최초의 발굴은 1964~1970년까지 실시된 사당리23호 요지 발굴조사이다. 최순우(당시 국립 박물관 미술과장)는 청자기와에 대한 학문적 흥미를 갖고 강진 대구면 일대 요지를 여러 차례 답사하던 과정에서 사당리 117번지 일대에서 청자기와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⁹⁴⁾ 이 곳은 현재 사당리23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사당리 117번지, 126번지, 127번지가 만나는 지점이며, 현재 고려청자박물관 건물부지 서편도 일부 여기에 해당한다.

당시 조사에서 가마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초벌 편도 상당량 조사되어 가마 유구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미 일반 가옥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퇴적층은 이미 교란되어 있었다. 1966년 조사에서는 건물지의 초심과 적심이 발견되었으

92) 이때 사적지로 지정된 필지는 1939년 古蹟으로 지정된 필지와 동일하다. 관보 제3351호(1963년 1월 21일) 사적제지정목록(문교부 고시 제174호)

93) 崔淳雨, 『韓國靑磁窯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康津郡海岡陶磁美術館, 『康津의靑磁窯址』, 康津靑磁窯址 地表調査報告書 第一卷, 1992.

康津郡海岡陶磁美術館, 『康津靑磁窯址 分布 地籍圖·地形圖』, 康津靑磁窯址 地表調査報告書 第二卷, 1992.

국립중앙박물관,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圖版 編, 1996.

국립중앙박물관,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本文 編, 1997.

호남문화재연구원, 『康津 三興里窯址』 I, 2004.

국립광주박물관, 『康津 三興里窯址』 II, 2004.

康津郡(財)民族文化遺産研究院, 『康津 沙堂里 43號高麗靑瓷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2015.

康津郡(財)民族文化遺産研究院, 『康津 龍雲里 63號高麗靑瓷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2015.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5.

94) 崔淳雨, 『康津沙堂里窯址出土靑磁瓦』, 『美術資料』 9, 국립중앙박물관, 1964. pp.25~26.; 同著, 『高麗靑磁瓦』, 『美術資料』 13, 국립중앙박물관, 1969.

며, 이후 조사에서 14세기에 제작된 상감청자와 청자 자판이 출토되었다고 한다.⁹⁵⁾

출토유물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청자의 거의 모든 기종과 문양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까지 넓지 않은 면적에서 엄청난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청자기와와 板을 비롯하여 여러 기형의 비색청자, 동·식물 모양의 상형청자, 음각·양각·압출양각·투각·상감·철화·철채상감 등 다양한 시문기법, 왕릉, 관사, 干支, 年號가 새겨진 청자까지 고려청자 편년연구에 중요한 명문자료도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려고 한다.

② 사당리41호 발굴조사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어서 1973년과 1974년에 고려청자박물관 건물 동쪽 편에 위치한 사당리41호 요지를 발굴하여 반지하식 등요(登窯) 1기를 확인하였다. 가마는 갑발을 먼저 포개어 쌓아올려 뼈대구조를 만든 다음, 진흙을 발라 틈새를 메우는 방식으로 벽을 조성하였다. 잔존하는 가마의 규모는 길이 8m, 폭 1.1m~1.5m 내외이다. 조사 당시 가마가 5차레에 걸쳐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지표조사(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1979년~1980년에 전국에 지표조사 실시하여 250여 개소의 청자요지를 확인하였다. 최순우는 총 153개소의 강진 청자요지를 정리하면서 용운리는 10세기 초~11세기 중엽에 운영되었고, 중국의 월주요, 요주요, 여요와의 영향관계가 있다고 파악하였다.⁹⁶⁾ 토기요지와 청자요지가 공존하는 칠량면 삼흥리는 10세기 경 용운리 초기 청자요지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계율리는 11세기 후반~13세기 초기, 수동리는 14세기 경에 운영되었고, 사당리는 12세기 전반~13세기, 그중에서 미산마을 요지는 14세기까지 지속되었는데, 특히 196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사당리23호 요지는 12세기 전반~중·후반에 비색과 상감기법 완성된 곳으로 설명하였다.

④ 용운리9호·10호 발굴조사

1980~1982년에는 당전저수지 축조공사로 인해 수몰 지역내에 있던 용운리9호, 용운리10호 요지가 국립중앙박물관 발굴단에 의해 조사되었다. 토기가마와 용운리9호 요지 트렌치조사에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용운리10호 요지에서는 모두 4기의 청자가마가 확인되었다.⁹⁷⁾ 4기의 가마는 잔존길이가 8m를 넘지 않고, 배연부가 이미 삭평되어 배연부의 구조와 가마의 전체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보고서상에는 강진 용운리9호가 9세기 후반~10세기 전반, 용운리10-I 층은 10세기 전반~10세기 중엽, 용운리10-II 층 가나다 유형은 10세기 후반~11세기로 편년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성과를 종합해보면 12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태안 대섬 출수유물, 사당리43호 발굴조사 유물과 비교를 통해 용운리 보고서의 편년은 수정되고 있다.⁹⁸⁾

95)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5. p.10.

96) 崔淳雨, 『韓國靑磁窯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97) 4기의 가마중 상태가 양호한 용운리10-1호와 용운리10-4호는 경화처리 후 각각 국립광주박물관과 고려청자박물관에 이전하여 전시하고 있다. 4기의 가마 크기는 다음과 같다.

	잔존길이	가마 폭	경사도	개보수
10-1호	7.5m	1.2~1.3m	13~15도	1회
10-2호	2.9m	1.2m	-	3회
10-3호	7.5~7.6m	1.2~1.35m	8~10도	1회
10-4호	7.4m	1.2	13도	-

98) 대략 용운리9호는 11세기, 용운리10-I 층은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용운리10-II 층 가유형은 12세기 전중반, 10-II 층 나다 유형은 12세기 중반~13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

⑤ 지표조사(해강도자미술관)

강진 청자요지가 188개소로 확인된 것은 1991~1992년 정밀지표사에서다. 각 요지의 지적도·지형도도 같이 발간되었으며, 수습된 청자를 기종, 釉胎, 번조법, 굽받침, 갑발과 도침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하여 I 유형부터 VI 유형까지 6단계의 변천과정을 설정하였다.⁹⁹⁾ 지표조사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유형의 유물과 공반하지 않고 III 유형만을 보이는 가마터의 수는 55개소로 상당히 많다.¹⁰⁰⁾ 또 II 유형과 III 유형이 공반하는 가마터는 9개소, III 유형과 IV 유형이 공반하는 가마터는 43개소이다.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III 유형의 특징은 강진 청자가마터의 절반 이상에서 확인되며, 그만큼 지속된 기간이 길었음을 알 수 있다.

⑥ 삼흥리(1호·3호·4호) 발굴조사

호남문화재연구원과 국립광주박물관은 2001~2002년에 칠량면 삼흥저수지 제방 승상 사업에 따라 저수지 주변의 요지가 구제발굴하였다. A지구~F지구 총 6개 지구에서 고려시대 청자가마 4기와 도기가마 12기가 확인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내저곡면이나 내저원각의 해무리굽완을 생산한 초기단계에 청자가마와 도기가마가 같은 요장에서 동시에 운영되었음이 밝혀졌다. 기존에 알려진 요지번호로는 B지구가 삼흥리1호, D지구가 삼흥리3호, E지구가 삼흥리4호이다. 삼흥리3호에서는 내저곡면의 해무리굽완이, 삼흥리4호에서는 얇은 퇴적층에서 내저원각 해무리굽완과 함께 尙藥局명 합, 모란문기와가 같이 출토되기도 했다.

⑦ 사당리43호 발굴조사

2012년 발굴된 사당리43호는 강진 청자요지중에서 아궁이부터 가마 후미부까지 온전한 형태로 조사된 경우이다. 요전부, 화구부, 연소실, 불턱, 번조실, 초벌칸 등이 잔존하는 반지하식 단실요로 추정된다.(도7)



도 7. 사당리43호 가마

가마의 규모는 길이 20.0m, 폭 1.54~2.42m이다. 연소실에서 번조실로 연결되는 곳에는 90° 에 가까운 경사의 높은 불턱이 형성되어 있다. 불턱은 완형의 갑발을 4단으로 쌓은 후에 갑발 사이와 외부로 노출된 갑발 외면에 점토를 발라 만들었다. 번조실의 잔존깊이는 5~32cm이며, 13~15° 내외의 완만한 경사를 가진다. 트렌치 조사결과 3차레에 걸쳐 조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초벌칸은 번조실 끝자락에 위치하며 규모는 길이 126cm, 너비 168cm, 잔존깊이 11~29cm이다. 번조실 바닥보다 깊게 굴광한 후 말각방형으로 만들었다. 바닥면은 수평을 다진 후 그 위에 갑발편을 깔아 마무리 하였으며, 이 갑발편 위에 날그릇을 놓고 번조하였다. 청자 가마 1기와 퇴적구 2개소가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은 음각, 압출양각 기법이 중심을 이루는데 태안 대섬 출수 유물의 양상과 매우 비슷하여

99) 康津郡·海岡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康津靑磁窯址 地表調査報告書 第一卷, 1992. pp.28~29.
100) III 유형만 보이는 가마터는 총 55개소로 용운리에서 27개소(1, 2, 3, 4, 5, 6, 7, 8, 22, 24, 25, 26, 30, 39, 51, 61, 62, 64, 65, 66, 67, 68, 69, 70, 72, 73, 74호)이며, 계율리에서 20개소(1, 8, 11, 21, 22, 23, 24, 25, 28, 32, 34, 37, 43, 44, 45, 46, 54, 56, 57, 58호), 사당리에서 7개소(15-①, 19, 25, 31, 33, 34, 36호), 수동리에서 1개소(2호)이다. 또한 II 유형과 III 유형이 공반하는 가마터는 9개소(용운리 11, 27, 29, 32, 41, 50, 71호 / 계율리 19, 36호), III 유형과 IV 유형이 공반하는 가마터는 43개소(용운리 10, 14, 15, 20, 21, 23, 31, 40, 75호 / 계율리 3, 4, 12, 13, 14, 17, 18, 20, 26, 27, 30, 31, 38, 41, 42, 47, 48, 49, 51, 52, 53호 / 사당리 1, 2, 3, 5, 6, 12, 13, 17, 18, 20, 26, 30, 39호)이다.

12세기 중반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⑦ 용운리63호 발굴조사

사당리43호와 함께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용운리 63호 가마는 번조실의 양쪽 벽면 일부와 얇은 퇴적층만 소량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해무리굽완이 중심이며, 각종 기호가 새겨진 갑발도 출토되었다.

2. 강진 청자가마 구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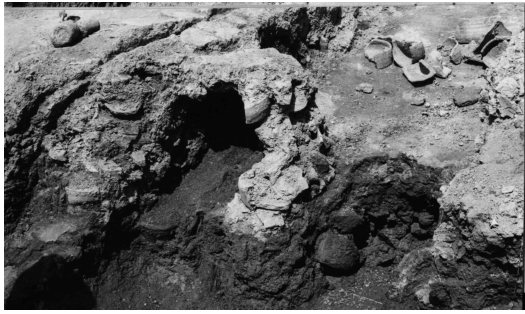
지금까지 강진 청자요지 발굴조사 결과, 강진의 청자 가마는 재료적인 면에서 갑발이나 일부 석재(石材)를 이용한 토축요(土築窯)이며, 자연 경사면을 약간 굴착한 반지하식 등요(半地下式 登窯)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가장 먼저 운영되었다고 하는 용운리63호 발굴조사에서도 가마 축조 시에 벽돌을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가마들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번조실의 바닥면은 자연경사면을 따라 편평하게 올라가며 바닥면과 천정사이에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단실요(單室窯)이다. 다만 계율리25호와 용운리10-4호에서와 같이 번조실 바닥에 갑발 4~5개를 옆으로 나란히 놓아서 가마재임 시에 수평을 맞추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5차에 걸쳐 개·보수된 사당리41호의 경우 다른 구조로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 1차~4차까지는 단실요 구조이고, 5차 시에는 불창기둥과 같은 구조가 상부와 하부에 남아 있다고 하면서 ‘할죽형(割竹形)의 다실요(多室窯)’ 라는 것이다.¹⁰¹⁾ 그러나 발굴보고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마의 하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기둥 사진만 게재되어 있고, 이 사진 또한 원본 사진을 편집한 것이었다.¹⁰²⁾ (도8)의 원본사진을 잘 살펴보면 갑발과 진흙으로 다져진 벽체가 궁륭형의 천정모양으로 번조실 좌측 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아마도 반대편 오른쪽에도 같은 터널식의 형태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번조실 중앙에 분염주(分焰柱)가 천정까지 이어져 좌우 양쪽 벽과 연결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상부에도 같은 구조가 남아 있었다고 하나 그 위치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다실요로 보는 위 해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1933년 부안 진서리12호 발굴조사에서는 제2실과 제3실에 각각 사당리41호와 같은 분염주의 격벽구조가 확인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다실요인 것이 분명한 사례이다.¹⁰³⁾

101) 鄭良謨, 「高麗陶磁의 窯址と出土品」, 『世界陶磁全集』 18, 高麗(日本:小學館, 1978), p.233. p.26.

102)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5. p.27. 사진 44. 보고서상에 실린 발굴사진의 원본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청하여 받아본 결과 보고서에 실린 사진은 원본 사진의 우측이 편집되어 있어서 불기둥의 원형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하다. 도?은 원본 사진이다.

103) 野守健, 「全羅北道扶安陶窯址調査復命書」, 1933년 5월 24일.



도 8. 사당리41호 5차가마



도 9. 용운리10-4호 가마

또 한가지 강진 청자요지에서 특이한 점은 용운리10호(10-1, 10-2, 10-4)에서만 확인되었던 특징으로 아궁이 좌측 작업공간에 폭 50~70cm, 높이 70cm 내외의 석실(石室)이 있다는 것이다.(도9) 발굴조사 당시에 석실속에서 재, 불에 탄 흙과 모래 등이 발견되었고, 석조 부재들이 고열로 인해 균열이 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또한 10-2호 석실에서는 바닥에 불에 탄 흙과 재층 사이에 매우 순수한 백색 고운 분말 상태의 石灰層이 발견되었는데, 발굴단은 이를 조개껍질을 구워서 칼슘을 얻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¹⁰⁴⁾

다음으로는 불턱구조의 출현이다. 고려 초기에는 용운리63호나 삼흥리 청자가마의 경우처럼 내저곡면 또는 내저원각의 해무리굽완을 제작한 가마는 아궁이와 번조실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약간의 경사가 있으면서 고열로 인해 유리질화가 된 상태이다. 그러나 해무리굽완을 생산하지 않은 사당리43호의 경우는 갑발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높이 50cm의 불턱이 확실하게 확인되었다.(도10) 용운리10-4호는 보고서상에 45도 각도의 불턱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의 자료이기는 하나 (도3)의 실측도면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향동요(V)와 후행하는 당전리요(IV), 미산요(I)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당전리요(IV)는 2번의 개축 과정을 거쳤고 도면상에도 1차 가마는 자연스러운 경사면이었다가 2차, 3차 가마는 수직의 불턱이 형성되어 있다. 즉 강진에서는 처음 가마를 축조할 때 아궁이와 번조실이 자연스러운 경사면을 따라 조성되다가 시간이 지나서 수직의 불턱구조가 확실해지는 구조가 등장하는 것으로 바뀌어 간 것이다.



도 10. 사당리43호 가마 불턱 구조

위에서 살펴본 사당리41호, 용운리10호, 사당리43호는 출토유물상으로 볼 때 모두 고려중기에 해당하는 가마들이다. 사당리41호와 사당리43호는 내화도빚음받침의 발과 접시, 음각의 연판문, 앵무문, 압출양각모란당초문 등이 확인되어 12세기 중반에 해당하는 태안 대섬 출수 청자들과 출토유물이 유사하다. 그래서 강진에서는 적어도 고려 중기 12세기에 분염주, 불턱과 같은 가마구조상에 변화를 주어 청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104) 국립중앙박물관,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本文 編, 1997. p.224.

IV. 강진 사당리 출토유물의 종류와 특징

강진 청자요지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고려청자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만큼 방대한 양이며,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발굴 보고서가 발간된 사당리23호 요지 출토유물 역시 고려청자의 모든 종류와 시문기법, 명문자료 등을 총망라할 정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당리 23호 요지 출토유물 중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몇 가지 유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① 쌍접문·쌍봉문 청자

나비 두 마리가 날개를 펼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문양과 봉황 두 마리가 서로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문양의 청자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또한 각각 초번(初燔) 편도 확인되었다.¹⁰⁵⁾ 이 청자들이 중요한 것은 중국 절강성 월주요에 해당하는 사릉구와 상림호 요지에서 제작된 청자와의 유사성 때문이며, 그 제작시기는 북송시대로 편년되기 때문이다. 월주요 청자는 측면 여섯 곳이 안쪽으로 눌러있는 花形이고, 그릇의 크기와 무늬가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어서 특정한 용도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나비무늬 접시가 정요(定窯) 백자로도 제작되어 977년(太平興國二年)에 해당하는 靜志寺塔塔基에서 출토되기도 했으며, 內蒙古 陳國公主墓(1018년)에서도 쌍접문의 월주요 청자가 발굴된 바 있다.(도11)



도 11. 청자음각쌍접문반
開泰七年(1018년)
內蒙古 陳國公主墓 출토



도 12. 청자음각쌍봉문반
중국 상림호 요지 출토

중국 쌍접문·쌍봉문 청자는 굽이 밖으로 외반된 형태이고, 굽안바닥에 墊圈을 받친 내화토 빚음 흔적이 남아 있다. 또한 굽안바닥에 ‘大’, ‘永’, ‘內’, ‘太平戊寅’, ‘吉’, ‘天’ 등이 음각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당리 쌍접문·쌍봉문 청자는 대부분 굽 접지면에 내화토 빚음 받침 흔적이 남아 있고, 중국과 동일하게 굽 안바닥에 남아 있는 경우도 일부 확인되었다. 또 월주요 쌍봉문의 경우 봉황 사이의 내저면 중앙에 ‘◎’ 이 음각된 공통점이 있는데, 강진에서 출토된 편에서는 이 문양이 없다.(도12)

② 북송 汝窯 청자의 영향

고려 12세기 전반은 중국 북송(北宋)과 활발한 문화교류를 했으며, 중국의 청자도 고려에 유입되어 고려청자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중국 하남성 보풍현(寶豐縣) 청량사요(淸涼

105) 쌍접문과 쌍봉문 청자 편은 東欣 李龍熙 선생이 사당리23호 요지에서 수습하여 2008년 고려청자 박물관에 기증해준 유물 중에서 확인한 바 있으나 초번 편은 2015년 발굴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寺窯) 출토유물 중에는 사당리 출토 연화형향로, 투합, 승반, 잔탁 등과 기형, 유색이 유사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도13)의 접시는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유물이며, 고려청자박물관이 매년 실시하는 조사에서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타원형의 접시도 확인되었다. 그릇의 두께가 전체적으로 매우 얇고 굽이 밖으로 벌어졌으며 굽지름이 매우 넓은 것이 특징이다. 중국 여요 양식의 청자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받침은 작은 규석받침을 받쳤는데 중국 여요의 支釘 받침과 혼동할 정도로 크기가 작고, 굽 안바닥 가장자리에 남아 있다. 타원형의 접시는 접지면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도 13. 사당리23호 출토 접시

③ 청자제기(簠, 象樽, 犧樽)

청자 제기는 지금까지 황해도 원산리, 경기도 용인 서리 요지에서 고려시대 초기 백자 제기들만 알려졌으나, 고려 중기에 강진 사당리에서 상감기법의 청자 제기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고려시대 중기에도 지속적으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도14)

	簠	象樽	犧樽
三禮圖			
강진 사당리 출토유물			

도 14. 사당리23호 출토 청자제기

④ 淡鐵彩기법

고려 중기에는 가마구조의 세부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시문기법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상감기법에서 흑색 또는 백색 외에 暗灰色상감이 있음은 이미 거론된 바 있다.¹⁰⁶⁾ 그런데 사당리 출토유물 중에는 鐵彩기법중에서도 수묵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먹의 짙고 묽은 정도에 따른 濃淡 변화도 청자제작에 시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15)의 파초문양은 외곽선과 잎맥을 상감으로 표현하고 입의 안쪽 면을 열게 칠채한 것

106) 鄭良謨, 「高麗象嵌靑瓷傳承與發展」, 『2013高麗靑瓷國際學術會議論文摘要集』, 浙江大學校韓國高等教育財團, 2013. pp.116~118.

을 볼 수 있으며, 유사한 예는 많지 않다. 전제품 중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포도문표형주자와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청자상감매죽류로수금문매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매병의 경우는 같은 매병의 앞뒤 문양이 흑상감과 담철채로 나뉘서 표현된 경우로 생각된다. 흑상감된 부분의 검은 색보다 담철채 문양은 훨씬 색이 옅고, 흑상감된 윤곽선의 상감선 또한 마치 붓으로 칠한 듯 선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으면서 중간에 끊어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파초 잎을 흑색으로 넓게 면상감한 다음 윤곽선과 잎맥을 백상감으로 장식한 편도 있다.¹⁰⁷⁾ 이러한 담철채, 중복상감은 고려중기에 강진에서 시도된 회화적 표현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⑤ 기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로서 대롱모양으로 말려있는 어린 연잎과 넓게 펼쳐진 연잎, 그리고 활짝 핀 연꽃 송이가 가지째 묶여 있는 모습의 완이다. 지금까지는 이 유물의 생산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으나 사당리 발굴유물에 이와 동일한 편이 확인됨으로써 이 유물 역시 강진 사당리에서만 소량 생산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청자 기와와 함께 건축 자재로 쓰였던 청자 판은 그 두께에 따라 0.5cm내외, 1.0~1.5cm내외, 2.5~3.0cm 내외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제일 얇은 도판의 문양이 가장 복잡하면서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2012년 강진 월남사지 발굴조사에서는 가로·세로 각각 16cm정도의 정사각형에 두께 1.0cm, 연꽃무늬가 음각된 판만 출토되기도 하였다.

유병이나 원통형잔의 받침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투각접시 또한 사당리23호 발굴조사를 통해 생산지와 용도가 확인된 경우이다. 인천 강화여고 기숙사부지 발굴조사에서 상감문양의 통형잔과 투각접시, 연판문 뚜껑이 함께 출토되었다.¹⁰⁸⁾ 이외에도 청동범종을 작게 청자로 만든 범종(梵鐘)도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삼각형 모양을 흑상감과 백상감으로 구분하여 그릇 전체에 가득 메운 매병도 확인되었다.

1960년대 발굴당시 사당리23호 요지에서는 가마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출토유물로 보면 11세기에 제작된 청자부터 14세기 명문청자까지 출토되었다. 최고 품질의 청자는 물론 당시 중국과의 교류관계를 볼 수 있는 쌍접문·쌍봉문 청자와 여요 양식의 청자, 仁宗 長陵 출토 과형병, 毅宗과 養怡亭관련 銘文기와, 보·상·준·희·준과 같은 제기, 관사명, 至正명, 干支명 청자, 특수기호 등 사당리에서만 출토되는 고려 왕실관련 유물들이 많다. 또 강진 청자요지 중에서도 백자는 사당리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제작기법적인 면에서도 철채, 철채상감, 淡鐵彩, 흑유까지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곳도 사당리23호, 사당리7호 요지이다. 대부분 상당히 고급으로 만들어진 청자에 ○, ● 기호가 새겨진 예도 사당리23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강진 청자요지 중에서도 현재 고려청자박물관 건물 좌측과 앞쪽에 해당하는 사당리23호와 사당리7호 지역이 고려청자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강진의 청자요지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역이었다는 의미이다.



도 15. 담철채파초문매병 편 사당리23호 출토

107) 鄭良謨, 「위의 논문」, 2013. p.117. 정양모는 이것을 ‘중복상감(重複象嵌)’이라 명명하였다.

108) 인천광역시교육청·서경문화재단연구원, 『강화 관청리 향교골 유적』, 2012. pp.6~7.

V.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강진 청자요지 조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는 자료수집의 한계와 일제의 잔재라는 심리적 거부감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또 기존에 알려진 인물은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노모리 켄 정도였으나 새롭게 야기쇼자부로, 고모리 진, 나카오 만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1920년대 전반까지는 중국과 일본도자 연구의 부수적인 성격으로 제작기술, 가마구조 측면에서 소략하게 다뤄졌지만, 나카오 만조는 1925년 강진 청자조사 이후 고려청자를 문헌과 유물,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미술사적 연구 성과를 남겼음을 알 수 있었다. 나카오 만조와 노모리 켄의 고려청자 연구는 광복이후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경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보고서는 발간을 오랫동안 고대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반가운 일이었다. 11세기부터 14세기로 편년되는 다양한 유물들이 많은 의문과 호기심을 끌었고, 청자 제작과 관련된 건물지도 확인되었다. 사당리23호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많이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유물의 이동이 많았을 것이다. 때문에 고려청자박물관에 소장된 같은 요지의 유물도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발굴보고서가 좀 더 일찍 발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쌍접문·쌍봉문 청자, 보·상·준·희·준과 같은 청자제기, 청자범종, 현대적인 삼각형문양, 새로운 구성의 음각, 압출양각문양 등을 확인하였고, 고려 중기에 다양한 시문기법의 하나로 淡鐵彩기법이 있었음도 알 수 있었다. 사당리41호 가마는 분염주가 한 개 있는 격벽 구조의 다실요 가능성은 있지만 당시 발굴사진과 도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예정된 사당리23호 주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요지와 건물지에 대한 성격 규명이 확실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1914년과 1928년 강진 청자요지 조사 자료도 발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발표3

**고려시대의 越窯風 雙蝶紋·雙鳳紋靑瓷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고려 초기청자의 새로운 면모**



이희관 前 호림박물관 학예실장

고려시대의 越窯風 雙蝶紋 雙鳳紋 靑瓷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고려 초기청자의 새로운 면모

이 희 관(前 호림박물관 학예실장)

- I. 머리말
- II.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출토 현황과 생산 요장 및 소비처
- III.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문양과 裝燒工藝의 특징
- IV. 월요에 있어서 쌍접문·쌍봉문의 전개
- V.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제작시기
- VI. 맺음말—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도자사적 啓示

I. 머리말

2009년 8월 필자는 강진의 고려청자박물관(당시 강진청자박물관)을 관람하던 중 마침 전시되어 있던 東欣 李龍熙 선생 기증유물 가운데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청자편 세 점을 발견하였다. 접시나 碗으로 추정되는 기물의 내저면에는 나비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모양의 쌍접문 또는 鳳 두 마리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모양의 쌍봉문이 비교적 가는 음각선으로 새겨져 있었다(도1). 이러한 형태와 기법의 쌍접문과 쌍봉문은 越窯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도2) 고려청자 가운데에서는 본적이 없는 부류였다. 이제까지 알려진 고려청자에 보이는 쌍접문은 철화기법이나 상감기법으로 시문된 것들이며(도3), 그 형태도 이용희 선생 기증유물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¹⁰⁹⁾ 그리고 쌍봉문의 경우도 알게 새긴 양각기법이나 상감기법으로 시문한 것들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도4).¹¹⁰⁾ 그래서 처음에는 고려청자박물관에 전시된 이것들이 혹 월요청자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후에 이것들의 釉와 裝燒工藝의 특징 등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이것들이 고려청자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越窯風의 쌍접문이나 쌍봉문이 시문된 고려청자의 표본이 고작 세 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고려청자와 월요의 관계를 검토할 때 이것들의 존재만 간단히 언급하고¹¹¹⁾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검토는 훗날의 과제로 남겨 놓았다.

109) 국립중앙박물관 편, 『高麗靑磁名品特別展』, 通川文化社, 1989, 186쪽의 도263; 湖林博物館 學藝研究室編, 『호림박물관 신사분관 개관기념 특별전 고려청자』, 成保文化財團, 2009, 82쪽의 도60 등 참조.

110)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編, 『高麗靑磁への誘い』, (財)大阪市美術振興協會, 1992, 54쪽의 도45; 박해훈 등 편, 『천하제일 비색청자』, 국립중앙박물관, 2012, 155쪽의 도166 등 참조. 단, 강진 사당리요지와 부안 유천리요지에서 음각기법의 鳳紋이 있는 표본이 출토되었는데, 쌍봉문이 아닌, 單鳳紋이며, 봉의 형태도 월요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황지현·장성욱 편,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 142쪽의 도256; 具一會·姜京男 편, 『부안 유천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1, 190쪽의 도433 참조.

111) 李喜寬, 「高麗 初期靑瓷와 越窯의 關係에 대한 몇 가지 問題」, 『史學研究』 96, 2009, 34쪽.



도1 靑瓷陰刻雙蝶紋·雙鳳紋접시, 고려청자박물관



도2 越窯劃花雙蝶紋·雙鳳紋盤, 上林湖越窯址 출토 浙江省博物館



도3 靑瓷象嵌菊蝶紋油瓶, 호림박물관



도4 靑瓷象嵌牡丹紋盒(뚜껑內面) 국립중앙박물관



도5 靑瓷陰刻雙鳳紋접시, 개성 고려궁성 출토



도6 靑瓷陰刻雙蝶紋碗, 개인(李龍熙)



도7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특별전에 출품된 靑瓷陰刻雙蝶紋접시편, 사당리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그 후 개성 고려궁성에서 두 점의 월요풍 쌍봉문고려청자편이 출토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도5).¹¹²⁾ 그리고 이용희 선생이 또 한 점의 월요풍 쌍접문고려청자편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도6).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고려청자에 보이는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외적인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5년 12월 22일~2016년 2월 21일에 개최한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특별전이였다. 이 특별전에 출품된 고려청자 가운데 월요풍의 쌍접문 혹은 쌍봉문이 새겨진 5점의 표본을 확인하였다(도7). 傳言에 의하면, 이 특별전에 출품되지 않은 사당리 발굴품 가운데에는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근래에 비로소 우리 앞에 그 존재를 드러낸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작되고 어디서 소비된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문양을 가진 청자의 출현은 고려청자의 전개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푸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출토 현황과 생산 요장 및 소비처

월요풍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의 實例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것들은 크게 강진 사당리요지 출토품, 이용희 선생 채집품, 개성 고려궁성 출토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表1> 참조).

[강진 사당리요지 출토품] 강진 사당리요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1964년~1977년에 총 9차에 걸쳐 발굴되었으며, 2015년에 보고서가 간행되었다.¹¹³⁾ 이 발굴을 통하여 15,115점의 청자가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청자가 구체적으로 몇 점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필자가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특별전에 출품된 유물과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 가운데에서 확인한 것은 총 13점이다. 전언에 의하면, 실제로 출토된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총 수량이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필자가 확인한 13점의 표본 가운데 쌍접문청자는 6점이고(SD①~⑥). 영문의 유물번호는 뒤에 첨부한 <表1>과 <表2>의 그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 나머지 7점은 쌍봉문청자이다(SD⑦~⑬). 6점의 쌍접문청자는 모두 접시편으로, 하나같이 동체의 내저면은 평평하고 넓으며 측면은 활처럼 완만하게 벌어지고(弧腹) 구연은 직립한 기형으로 추정된다. 굽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본 가운데¹¹⁴⁾ SD①만 直圈足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바깥으로 살짝 말려 外反한 이른바 外撇圈足인데, 모두 저경이 큰 편이다. 유약을 입히지 않은 초별구이편인 SD⑤를 제외하면, 유색이 모두 기본적으로 담청록색 계열이다. SD②·③·④·⑥의 釉가 반실투성인 반면, SD①의 경우 투명도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원료의 배합이 다른 유약을 입혔다기보다 유약을 얇게 입혔거나 소성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SD②와 SD③은 쌍접문의 일부만 남아 있고, 그 나머지 표본들은 모두 문양이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다.


112) 이 점을 알려준 것은 문화재청의 崔明智 연구원이다.

113) 황지현·장성욱 편,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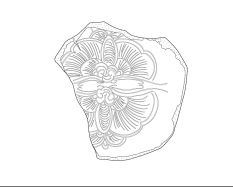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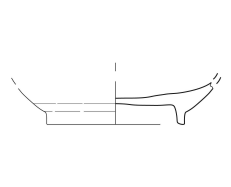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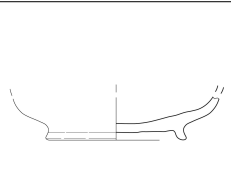

114) SD⑥는 저부에 갑발편이 부착되어 있어 굽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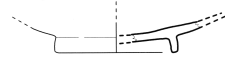

<表1> 월요풍 쌍접문·쌍봉문 고려청자 출토 현황

분 류	유물 번호	문양	기종	규격(cm)		유 색	출토지점	도 판		전 거
				높이	저경					
강진 사당리 요지 출토품	SD①	쌍접문	접시	3.1 (잔존높이)	7.7	담청록색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A1			사당리보고서* 도200
	SD②	쌍접문	접시	3.7	7.6 (추정)	담청록색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B1			사당리보고서 도205
	SD③	쌍접문	접시			담청록색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SA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28
	SD④	쌍접문	접시			담청록색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28

분 류	유물 번호	문양	기종	규격(cm)		유 색	출토지점	도 판		전 거
				높이	저경					
	SD⑤	쌍접문	접시			(초벌구이편)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A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175
	SD⑥	쌍접문	접시			담청록색				「강진 사당 리 고려청자」 특별전 출품 유 물로서 사당리 보고서에는 미 수록
	SD⑦	쌍봉문	碗	7.4	8.0 (추정)	담청록색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B1			사당리보고서 도15
	SD⑧	쌍봉문	접시	3.2 (잔존높이)	9.8	청황색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A1			사당리보고서 도209

분 류	유물 번호	문양	기종	규격(cm)		유 색	출토지점	도 판		전 거
				높이	저경					
	SD⑨	쌍봉문	碗			담청록색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5
	SD⑩	쌍봉문	접시			담청록색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SA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28
	SD⑪	쌍봉문	접시			담청록색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SA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28
	SD⑫	쌍봉문	접시(?)			담청록색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SA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28
	SD⑬	쌍봉문	접시(?)			· (초벌구이편)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A1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175

분 류	유물 번호	문양	기종	규격(cm)		유 색	출토지점	도 판		전 거
				높이	저경					
이용희 선생 채집품	LC①	쌍접문	碗(?)		6.8	담청록색	사당리127번지 서편 구역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일대)			
	LC②	쌍접문	접시	2.4 (잔존높이)	7.2	담청록색	사당리127번지 서편 구역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일대)			金世眞 作圖
	LC③	쌍접문	碗(?)	2.1 (잔존높이)	7.0	담청록색	사당리127번지 서편 구역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일대)			金世眞 作圖
	LC④	쌍봉문	접시	2.9 (잔존높이)	9.2	청황색	사당리127번지 서편 구역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일대)			金世眞 作圖

분 류	유물 번호	문양	기종	규격(cm)		유 색	출토지점	도 판		전 거
				높이	저경					
개성 고려궁성 출토품	KG①	쌍봉문	접시		8.2 (복원저경)	청황색	개성 고려궁성 3-5호 건물지			고려궁성 보고서** 258쪽
	KG②	쌍봉문	접시			담청록색				

* 사당리보고서는 황지현·장성욱 편,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를 가리킨다.

** 고려궁성보고서는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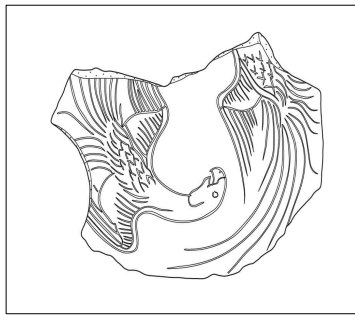
<表2>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와 같은 품격의 고려청자 출토 현황

분 류	유물 번호	문양	기종	규격(cm)		유 색	출토지점	도 판		전 거
				높이	저경					
이용희 선생 채집품	LC㉓	화문	碗(?)		6.0	담청록색	사당리127번지 서편 구역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일대)			
고려청자 박물관 소장품	KS㉓	앵무문	접시	1.4 (잔존높이)	6.9	담녹갈색	사당리23호요지 부근			
강진 사당리요 지 출토품	SD㉓	모란문	접시	2.7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B1			사당리보고서* 도204
	SD㉔	모란문	접시			담청록색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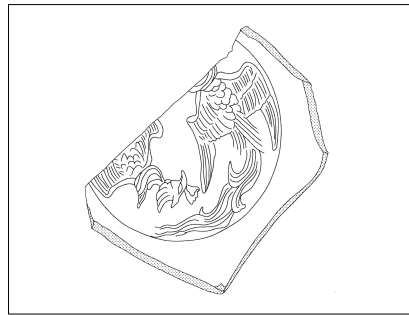
분 류	유물 번호	문양	기종	규격(cm)		유 색	출토지점	도 판		전 거
				높이	저경					
	SD㉔	앵무문	접시			담청록색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A1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31
	SD㉕	앵무문	접시			녹갈색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A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31
	SD㉖	용문	碗	6.4	6.2	담청록색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3A			사당리보고서 도141

* 사당리보고서는 황지현·장성욱 편,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를 가리킨다.

7점의 쌍봉문청자 표본 가운데 SD⑦과 ⑨만 碗이고,¹¹⁵⁾ 그 나머지는 접시로 추정된다. 碗의 경우 동체의 내저면이 편평하고 넓은 편이며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측면은 활처럼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구연부에 이르러 직립하였다. 굽은 外撇圈足에 가까우며, 저경이 비교적 큰 편이다. 접시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쌍접문청자접시와 전체적인 형태가 비슷하다. SD⑧과 초별구이편인 SD⑬을 제외하고서는 유색이 모두 기본적으로 담청록색 계열이며, 특히 SD⑦과 ⑩은 전형적인 비색청자의 그것과 흡사하다. 문양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SD⑨와 ⑬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문양의 일부만 남아 있다. 특히 SD⑩·⑪·⑫의 경우는 雙鳳紋의 날개 부분만 남아 있어 자칫 鸚鵡紋으로 오인될 소지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고려청자에서 발견된 앵무문은 모두 날개의 깃털이 한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도8), 쌍봉문은 두 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도9). 그러므로 날개의 깃털이 두 단으로 되어 있는 SD⑩·⑪·⑫에 보이는 문양은 쌍봉문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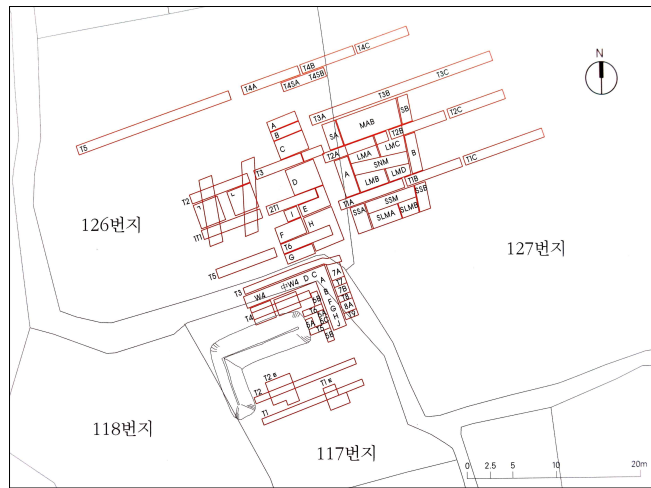


도8 고려청자에 보이는 앵무문 사당리요지 출토



도9 고려청자에 보이는 쌍봉문 사당리요지 출토

SD①~⑬ 가운데 필자가 구체적인 출토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총10점이다(SD①·②·③·⑤·⑦·⑧·⑩·⑪·⑫·⑬). 흥미로운 것은 그 10점이 모두 사당리요지 '가' 구역 3지점의 복단에 위치한 T4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이다(도10). 나머지 SD④·⑥·⑨도 이 試掘坑에서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T4에서는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 이외에도 고려 초기청자의 표식적인 기종인 해무리굽완부터 고려 말기의 상감청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의 청자편들이 출토되었다.



도10 사당리요지 '가'구역 시굴갱 배치도

[이용희 선생 채집품] 이용희 선생은 오랫동안 강진 고려청자의 재현에 심혈을 기울여온 주인공이다. 그가 채집한 월요풍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는 총 4점이며(LC①·②·③·④), 기종은 접시(LC②·④)와 碗(LC①·③)으

115) 보고서에서는 SD⑦을 鉢로 분류하였다. 황지현·장성욱 편,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 44쪽 참조.

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쌍접문청자는 3점이고(LC①·②·③) 나머지 한 점은 쌍봉문청자이다(LC④). 이 가운데 쌍접문청자 두 점과(LC②·③) 쌍봉문청자 한 점은(LC④) 고려청자박물관에 기증하여 해당 박물관 소장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점의 쌍접문청자 표본만(LC①) 이용희 선생이 소장하고 있다.

쌍접문청자 표본 3점은 모두 지극히 정교하게 성형·소성되었다. 釉가 맑고 윤택하며, 유색은 기본적으로 담청록색 계열로 LC①과 ③이 상대적으로 천청색에 가까운 반면 LC③은 청록색에 가깝다. 모두 전체적인 풍격이 이른바 비색청자와 흡사하다. 쌍봉문청자 표본(LC④)도 정교하게 제작되었지만, 냉각 과정에서 발생한 제2차 산화작용으로 인하여 유색이 청황색을 띠고 있다.

이용희 선생은 이 표본들을 채집한 시기와 지점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이 표본들은 1960년대에 채집하였다. 그리고 채집한 곳은 오늘날 고려청자박물관(본관)이 위치한 사당리 127번지의 서편 구역에 해당한다. 이 주위에는 사당리 23호요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1966~1970년에 발굴되었다(『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상의 ‘가’ 구역 3지점). 채집한 지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희 선생 채집품도 앞서 살펴본 사당리요지 출토품(SD①~③)과 동일한 요장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개성 고려궁성 출토품] 개성 고려궁성에서 출토된 두 점의 월요풍 쌍봉문청자 가운데 KG①은 이 유적의 3-5호 건물지 북쪽 기단 2호 축대에서 출토되었는데, 底部의 일부분만 남아 있는 조그만 片으로, 기종은 접시로 추정되며, 굽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청황색의 유색을 띠고 있다. 문양의 경우 鳳 한 마리의 머리와 목 그리고 몸통과 날개의 일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¹¹⁶⁾ 굽다리 바닥에 완전히 박락되지 않은 도침 혹은 갑발 조각이 부착되어 있다. KG②는 KG①보다 늦게 출토된 것으로서 이것을 수록한 보고서는 아직 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전언에 따르면, 이 표본은 기물의 底部와 동체의 일부만 남아 있는 片으로, 기종은 접시로 추정된다. 유색은 KG①과 달리 담청록색 계열로 맑고 윤택하다. 문양의 경우 鳳 한 마리의 머리와 몸체 일부만 남아 있다.

강진 사당리요지 출토품과 이용희 선생 채집품은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생산지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이제까지 이러한 유형의 청자는 강진을 제외한 어느 지역의 고려청자요지에서도 발견된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진의 여러 요지 가운데에서도 오직 사당리요지에서만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청자가 사당리의 특정 요장에서 생산되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거의 의심이 없다.

한편,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가 출토된 소비지 유적은 개성 고려궁성이 유일하다. 말하자면 이 유적에서 출토된 두 점의 쌍봉문청자는 궁정용 자기로 소비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청자가 모두 궁정용으로 제작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 모른다. 그 표본이 겨우 두 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당리요지는 고려 시기에 어용자기를 제작한 대표적인 요장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토된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 표본들의 상당수는 비색청자에 가까운 품질이 높은 것들이다.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보면, 그러한 유형의 쌍접문·쌍봉문청자가 모두 궁정용으로 제작되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적어도 고려의 궁정이 그 주요 소비처였다고 추측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으리라 믿는다. 요컨대,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출토 현황을 통하여 볼 때, 이 유형의 청자는 강진 사당리의 특정 요장에서 제작되고, 아울러 적어도 그 상당량은 개성의 고려

116) 최맹식 편,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258쪽.

궁정에서 소비되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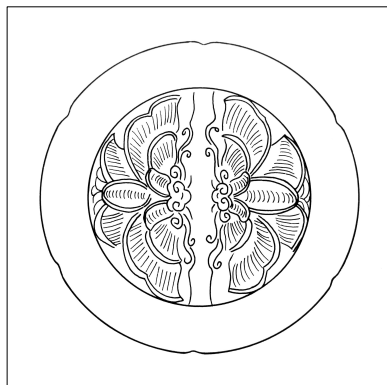
그러면 이러한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는 어느 시기에 제작된 것일까? 이것들이 출토된 사당리요지는 오래 전에 발굴되었지만, 이곳에서 출토된 청자표본들의 층위 관계는 파악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 층위 관계를 토대로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들의 제작시기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필자는 이 유형 청자의 문양과 장소공예의 특징이 그 제작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문양과 裝燒工藝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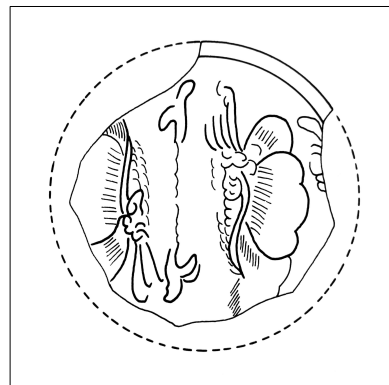
1. 문양

(1) 쌍접문

월요풍 쌍접문의 源流인 월요에서 유행한 쌍접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 하나는 날개를 활짝 벌린 나비 두 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을 위에서 보고 묘사한 것이고(I형, 도11), 또 다른 하나는 나비 두 마리가 배를 맞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고 있는 모습을 측면에서 묘사한 것이다(II형, 도12). 월요풍의 쌍접문이 새겨진 고려청자 표본은 총 9점인데(SD①~⑥, LC①~③), 이들 표본에 보이는 쌍접문은 모두 I형이다. I형 쌍접문은 나비의 형태에 따라 다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도11 越窯劃花雙蝶紋(I형)盤
寺龍口窯址 출토



도12 越窯劃花雙蝶紋(II형)盤
寺龍口窯址 출토

첫 번째 부류는 세 종류의 날개, 즉 앞날개·중간날개·뒷날개를 펼친 나비를 대칭적으로 묘사한 것이다(1식, 도13). 이 부류는 더듬이를 매우 장식적으로 표현하고, 머리 아래에 붙어 있는 한 쌍의 등판을 과도하게 크게 묘사하였다. 나비는 본래 앞날개와 뒷날개만을 가지고 있지만, 장식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종류의 날개를 더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LC①과 ③이 이 부류에 속한다. 월요에서 가장 크게 유행한 쌍접문은 바로 이러한 I형1식이다(도14). LC①~③과 上林湖窯址에서 출토된 월요청자의 I형1식 쌍접문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세부의 표현까지 거의 흡사하여 전자가 후자를 모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도13 靑瓷陰刻雙蝶紋(I형1식)碗[LC③(좌), LC①(우)], 사당리요지 출토, 고려청자박물관(좌)·개인(李龍熙)(우)



도14 越窯劃花雙蝶紋(I형1식)花形盤, 上林湖窯址 출토, 浙江省博物館

두 번째 부류는 두 종류의 날개, 즉 앞날개와 뒷날개를 가지고 있는 나비를 묘사하였는데, 뒷날개가 앞날개에 비해 과도하게 작게 표현되어 있다(2식, 도15). 더듬이 모양이 1식 쌍접문보다 상대적으로 간략화되어 있고, 등판은 작게 표현되어 있거나 아예 생략되어 있다. 1식 쌍접문보다 장식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SD①·②·④·⑤·⑥과 LC②가 여기에 속한다. 월요에서는 이러한 I형2식 쌍접문은 매우 드문 편이다. 북경 首都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越窯花形盤에 새겨진 예와(도16) 慈溪市 上林湖窯址(上Y65)와 紹興市 上竈官山窯址에서 출토된 盤片에 보이는 몇 예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도17).¹¹⁷⁾ 특히 수도박물관 소장품에 보이는 쌍접문과 SD④에 보이는 그것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다. 고려청자의 I형2식 쌍접문이 동일한 형식의 월요쌍접문을 모방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이 없다.

세 번째 부류는 1식 쌍접문처럼 세 종류의 날개를 가진 나비를 표현하였지만, 뒷날개를 과도하게 작게 표현하거나 등판의 표현을 생략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3식, 도18). 전체적인 문양의 형태가 오히려 2식 쌍접문에 가까운 편이다. SD③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월요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쌍접문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3식 쌍접문은 I형1식이나 I형2식 월요쌍접문이 고려에 유입된 후에 변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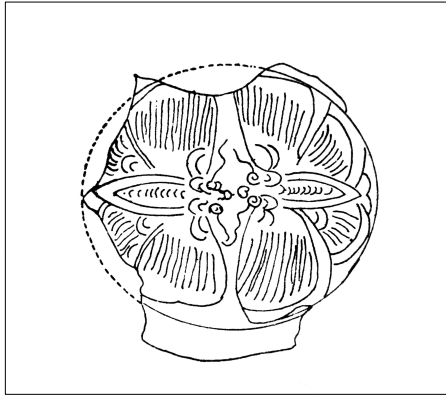


도15 靑瓷陰刻雙蝶紋(I형2식)접시(LC②) 사당리요지 출토, 고려청자박물관



도16 越窯劃花雙蝶紋(I형2식)花形盤, 首都博物館

117) 童兆良, 「上林越器單字款」,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 제5집, 2002, 159쪽의 圖46; 紹興市文物管理委員會, 「紹興上竈官山越窯調查」, 『文物』 1981년 제10기, 46쪽 참조.



도17 越窯劃花雙蝶紋(I형2식)花形盤
紹興市 上竈官山窯址 출토



도18 靑瓷陰刻雙蝶紋(I형3식)접시
사당리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2) 쌍봉문

월요의 쌍봉문과 고려청자에 보이는 월요풍의 쌍봉문은 모두 기본적으로 鳳 두 마리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鳳의 세부, 예컨대 머리털, 목덜미의 갈기, 날개의 끝부분 등의 표현 방식의 차이에 따라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한 부류는 휘날리는 머리털과 갈기 그리고 날개의 끝부분을 표현할 때, 테두리선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 몇 가닥의 선을 그어 세부를 표현하였다(1식, 도19). 월요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쌍봉문은 바로 이러한 1식의 그것이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鳳의 머리털과 갈기 그리고 날개의 끝부분을 표현할 때 테두리선을 그리지 않고 몇 가닥의 선으로 직접 해당 부분을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2식, 도20).

월요풍의 쌍봉문이 시문된 고려청자 표본은 모두 10점인데, 1식 쌍봉문은 드문 편이다. SD⑧만이 여기에 해당한다(도21). 고려청자에 보이는 1식 쌍봉문은 특히 上林湖窯址에서 출토된 월요청자의 1식 쌍봉문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여, 전자가 후자를 모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SD⑧을 제외한 나머지 표본들에 보이는 쌍봉문은 모두 2식에 속한다. 월요에도 이러한 2식 쌍봉문이 보이지만(도22), 고려청자의 2식 쌍봉문보다 상대적으로 간략화되어 있고 꼬리의 형태도 크게 달라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마도 고려청자의 2식 쌍봉문은 고려청자의 1식 쌍봉문이 독자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19 越窯劃花雙鳳紋(1식)盤, 上林湖窯址 출토
浙江省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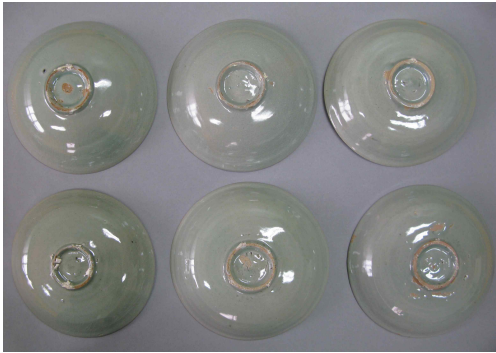
도20 靑瓷陰刻雙鳳紋(2식)접시
사당리요지 출토, 고려청자박물관



도21 靑瓷陰刻雙鳳紋(1식)접시, 사당리
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도22 越窯劃花雙鳳紋(2식)盤
寺龍口窯址 출토



도23 靑瓷陰刻鸚鵡紋접시(底部), 대섬침물선출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도24 靑瓷陰刻雙蝶紋碗(LC①, 底部)
사당리요지 출토, 개인(李龍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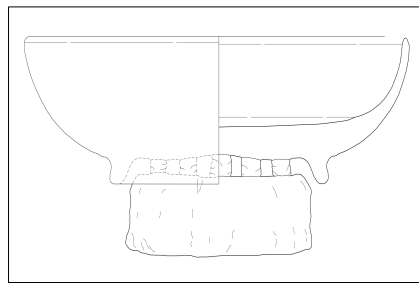
도25 越窯劃花雙蝶紋·雙鳳紋盤(底部), 上林湖
窯址 출토, 浙江省博物館



도26 靑瓷陰刻雙鳳紋碗(SD⑦, 底部)
사당리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도27 靑瓷鉢과 靑瓷盞托(底部)
방산동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도28 陶枕支燒의 概念圖(金世眞 作圖)

2. 裝燒工藝

사당리요지에서는 제작시기와 품질 그리고 기종 등에 따라 백색내화토빛음받침, 모래 섞인 내화토빛음받침, 규석받침, 모래받침, 태토빛음받침 등 다양한 장소공예 방식이 채택되었음이 확인되었다.¹¹⁸⁾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 표본 가운데, 어떠한 장소공예 방식을 채택하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저부에 갑발편이 부착되어 있는 SD⑥과 초별구이편인 SD⑤·⑬을 제외한 16점이다. 이 16점의 표본들은 새겨진 문양과 관계없이 모두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치고 소성하였음이 확인된다.

이것들의 대다수는 굽다리 바닥의 유약을 닦아낸 후 그곳에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치고 소성하였다(墊燒).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현상은 굽다리 바닥에 받친 백색내화토빛음의 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는 점이다.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이 시문된 기종, 즉 접시나 碗과 같은 기종의 경우, 이제까지 알려진 예들은 5개 이하의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친 것이 일반적이다(도23). 하지만 문제의 16점의 표본들은 모두 7개 이상의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친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LC①의 경우는 자그마치 14개의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친 것으로 확인된다(도24).

쌍접문이나 쌍봉문이 시문된 월요청자에서는 이와 같이 굽다리바닥에 내화토빛음을 받치고 소성한 예 자체를 찾을 수가 없다. 그것들은 모두 굽 안바닥에 내화토빛음을 받친 흔적이 남아 있다(도25).

흥미로운 것은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 표본 가운데에도 굽 안바닥에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치고 소성한 예가 있다는 점이다. SD②·③·⑦이 여기에 해당한다(도26). 굽 안바닥에 남아 있는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친 흔적은 오대시기 이후의 월요청자에서 흔히 발견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고리 모양의 墊圈을 받치고 소성한, 즉 墊圈支燒를 한 흔적이다. 월요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출현한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요장에서 소성한 일부 기물에서도 그러한 흔적이 확인된다(도27). 하지만 사당리요지에서는 점권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당리요지에서 출토된 쌍접문·쌍봉문청자의 굽 안바닥에 백색내화토빛음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그러한 점권지소의 결과로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 SD②·③·⑦의 굽다리를 자세히 보면 모두 그 안쪽면에 거친 모래가 섞인 내화토로 빛은 검붉은 색의 陶枕 부스러기가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이 기물들을 소성할 때 받친 요도구가 점권이 아니고 도침이었음을 말해준다. 이 기물들은 각각의 지름이 굽다리의 안쪽 지름보다 약간 작은 도침을 굽 안바닥에 받치고 소성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소성한 후에 기물과 도침이 잘 분리되게 하기 위하여 굽 안바닥 몇 군데의 유약을 닦아내고 그곳에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친 것으로 파악된다. 말하자면 이 기물들은 陶枕支燒를 한 셈이다(도28).

이러한 도침지소 방식을 채용한 예는 월요뿐만 아니라 사당리요지를 제외한 어느 고려청자요지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도침지소는 사당리요장의 도공들이 독자적으로 고안해낸 장소공예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그들은 굽다리 바닥에 내화토빛음을 받치고 소성할 경우 지지분한 내화토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아 그 기물을 사용하는 데에도 불편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점을 보완한 장소공예 방식으로 이 도침지소법을 고안해 낸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그렇지만 이 방식도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하나는 도침의 높이가 굽다리의 높이보다 높고 아울러 지름이 굽 안바닥

118) 황지현·장성욱 편,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 35~36쪽.

의 그것보다 작아서 그 위에 기물을 고정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정된 상태가 비교적 불안정하여 소성 과정에서 기물이 무너지기 쉬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물의 태도와 도침의 원료가 다르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양자의 수축팽창률이 달라 소성 과정에서 도침과 기물의 굽다리 안쪽 면이 붙어버림으로써 불량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SD②·③·⑦은 모두 이 원인으로 폐기처리된 것들이다.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도침지소 방식은 사당리요장에서조차 매우 예외적으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개량된 支燒 방식인 규석반침이 출현하면서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다고 판단된다.

고려시대의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가 월요의 영향 아래 제작되기 시작한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이 없다.¹¹⁹⁾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요의 영향은 문양과 장소공예 가운데 전자에 한정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고려청자에 보이는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 가운데에는 월요로부터 직접 유입된 유형도 있고, 고려에 유입된 후에 변용된 유형도 있다. I형1식·2식 쌍접문과 1식 쌍봉문이 전자에 해당하고, I형3식 쌍접문과 2식 쌍봉문이 후자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의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각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전자이다. 이들은 언제 월요로부터 유입된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월요에서의 쌍접문과 쌍봉문의 전개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IV. 월요에 있어서 쌍접문·쌍봉문의 전개

잘 아는 바와 같이, 월요에서는 오대시기까지 문양이 그다지 유행하지 않았다. 쌍접문과 쌍봉문을 비롯한 문양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북송시기에 접어든 이후의 일이었다.

1. 쌍접문

쌍접문은 북송시기에 월요에서 가장 크게 유행한 문양 가운데 하나로서, 거의 다 세선획 화기법으로 시문되었다. 월요에서 발견되는 이 시기의 쌍접문의 주류는 I형이며, II형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제까지 I형의 쌍접문월요청자가 발견된 유적 가운데 연대가 가장 이른 것은 아마도 인도네시아의 井里汶沈沒船(the Cirebon shipwreck)일 것이다. 이 침몰선에서는 내저면에 I형1식의 쌍접문이 細線劃花技法으로 새겨진 6瓣의 월요화형반이 出水되었다(도29).¹²⁰⁾ 이 침몰선에서 출수된 월요청자는 30만점이 넘는데,¹²¹⁾ 그 가운데 한 연관문완의 외저부에

119) 쌍접문과 쌍봉문은 월요 이외에 정요와 요주요 등에서도 유행하였다. 하지만 고려청자에 보이는 월요풍의 쌍접문·쌍접문과는 그 형태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 요장과 고려청자 사이에 쌍접문과 쌍접문을 매개로 한 영향 관계는 상정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송대의 여러 요장에서 생산한 자기에 보이는 쌍접문과 쌍봉문에 대해서는 謝明良, 「略談對蝶紋」, 『故宮文物月刊』 260, 2004: 『陶器手記』, 石頭出版, 2008, 127~133쪽; 穆青, 「定窯白瓷裝飾技法及鼎盛期的典型紋樣」, 『中國定窯』, 2012, 272~277쪽; 陝西省考古研究所, 『五代黃堡窯址』, 文物出版社, 252쪽; 陝西省考古研究所, 『宋代耀州窯址』, 文物出版社, 637~649쪽 등 참조.

120) 이 월요화형반과 거기에 새겨진 쌍접문에 대해서는 楊之水, 「對沈船中幾類器物的初步考訂」, 『故宮博物院院刊』 2007년 제6기, 122~123쪽 참조.

121) 井里汶沈沒船에서 출수한 월요청자에 대해서는 秦大樹, 「拾遺南海 補闕中土—談井里汶沈船的出水瓷器」, 『故宮博物院院刊』 2007년 제6기, 91~98쪽; 沈岳明, 「越窯的發展及井里汶沈船的越窯瓷器」, 『故宮博物院院刊』 2007년 제6기, 102~106쪽; 李軍, 「東南亞發現的公元九至十世紀中國越窯青瓷相關問題研究」, 『越窯



도29 越窯劃花雙蝶紋(I형1식)花形盤, 井里汶沈沒船 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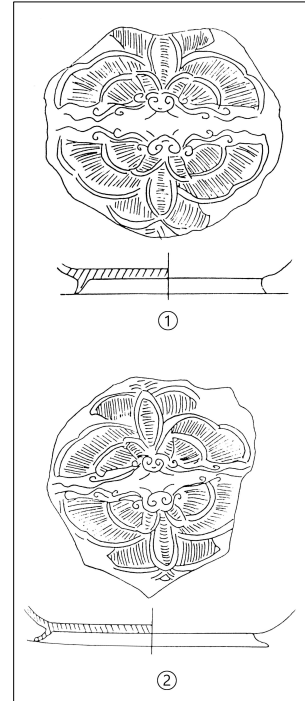
도30 越窯刻花蓮瓣紋“戊辰徐記燒”銘碗, 井里汶沈沒船 출수

는 “戊辰徐記燒”라는 음각명문이 보인다(도30).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문제의 “戊辰”년을 송 開寶 원년(968)으로 파악하고 이 완과 함께 선적된 월요청자가 968년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요지 이외의 유적 가운데 I형 쌍접문이 시문된 월요청자가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대만의 澎湖遺蹟일 것이다. 대만과 중국 대륙 사이의 대만해협에 있는 澎湖群島의 한 地點에서는 3,153점의 五代十國時期 월요청자가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 69점의 접시 또는 낮은 완의 내저면에 세선획화기법의 쌍접문이 새겨져 있다(도31).¹²²⁾ 이 쌍접문들은 모두 1식에 속하는 것들이다. 陳信雄의 정치한 연구에 의하면, 이 유적에서 발견된 월요청자는 977년 전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¹²³⁾

한편, 慈溪市 古銀錠湖窯址(Y6)에서는 “太平戊寅”명이 새겨진 월요화형반편이 출토되었는데, 이 반의 내저면에도 I형1식의 쌍접문이 새겨져 있다(도32).¹²⁴⁾ “太平戊寅”년은 송 太平興國 3년(978)을 가리킨다. 그밖에 遼 開泰7년(1018)에 축조된 遼陳國公主墓에서도 I형1식의 쌍접문이 새겨진 월요화형반 3점이 출토되었다(도33).¹²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형의 쌍접문이 새겨진 월요청자가 발견된 유적의 연대나 이 유형의 문양이 있는 기년명 월요청자의 연대는 모두 북송초기에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대표적인 월요요지인 寺龍口窯址의 발굴보고에 따르면, 이 유형의 쌍접문이 새겨진 표본들도 예외 없이 북송초기(960~1023)의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도34).¹²⁶⁾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볼 때, 월요에서



도31 越窯劃花雙蝶紋(I형 1식)盤(①·②) 澎湖遺蹟 출토

『靑瓷與邢窯白瓷研究』, 故宮出版社, 2013, 137~140쪽 참조.

122) 陳信雄, 『越窯在澎湖—五代十國時期大量越窯精品的發現』, 文山書局, 1994, 105~106쪽.

123) 陳信雄, 『越窯在澎湖—五代十國時期大量越窯精品的發現』, 文山書局, 1994, 123~132쪽.

124) 慈溪市博物館 編, 『上林湖越窯』, 科學出版社, 2002, 139쪽.

125)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等, 『遼陳國公主墓』, 文物出版社, 1993, 55쪽.

126)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等,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84~8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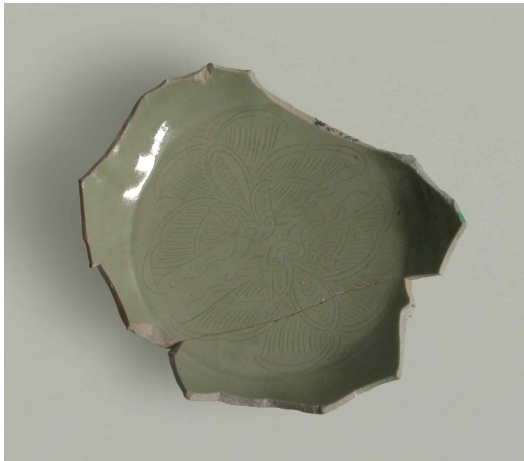


도32a 越窯劃花雙蝶紋(I형1식)“太平戊寅”銘花形碗,古銀錠湖窯址(Y6) 출토,慈溪市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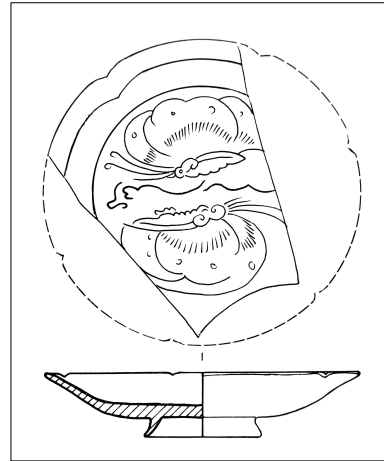
도32b 도31a의 底部



도33 越窯劃花雙蝶紋(I형1식)花形盤,遼陳國公主墓(1018)출토,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도34 越窯劃花雙蝶紋(I형1식)盤
寺龍口窯址 출토,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도35 越窯劃花雙蝶紋(II형)盤
寺龍口窯址 출토

I 형의 쌍접문이 유행한 시기가 북송초기의 범주를 벗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II형 월요쌍접문청자의 경우는 그 기년명 자료나 연대가 분명한 유적에서 출토된 예가 없다. 다만 사릉구유지의 경우, 이 유형의 쌍접문은 북송초기 퇴적층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형성된 그것에서부터 출토되기 시작하여,¹²⁷⁾ 북송말기(1078~1127)의 퇴적층에서 주로 출토된다(도35).¹²⁸⁾

127)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等,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85쪽 및 334~350쪽 참조.

128)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等,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79쪽85쪽106쪽 및 334~350쪽 참조.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볼 때, I 형과 II 형의 월요쌍접문은 유행한 시기의 측면에서 서로 선후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송초기는 I 형 쌍접문의 유행시기이고, 북송중기 이후는 II 형 쌍접문의 유행시기가 되는 셈이다.

2. 쌍봉문

쌍봉문도, 쌍접문과 마찬가지로, 북송시기에 월요에서 크게 유행한 문양이다. 월요에서는 1식과 2식의 쌍봉문이 모두 발견되었는데, 2식 쌍봉문은 정제된 1식 쌍봉문이 간략화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쌍봉문이 시문된 월요청자는 앞서 언급한 澎湖遺蹟에서 다량 발견되었다(도36). 이 유적에서 발견된 쌍봉문 월요청자 표본은 총 56점인데, 문양의 일부분만 남아 있어서 쌍봉문인지 앵무문인지 확정하기 힘든 표본이 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적인 쌍봉문 월요청자 표본의 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¹²⁹⁾ 이들 표본에 보이는 쌍봉문은 모두 1식에 속한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월요청자가 977년 전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1식 쌍봉문이 시문된 월요청자가 출토된 또 다른 유적으로 遼代祖陵陵園이 있다. 祖陵은 遼를 건국한 황제인 耶律阿保機와 그의 황후의 陵寢이다. 이 능원의 1호 陪葬墓(PM1)에서 월요청자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의 洗 2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점의 내저면에 1식 쌍봉문이 세선획화기법으로 시문되어 있다(도37). 발굴보고자는 이 배장묘의 축조연대를 요대초기로 넓게 편년하였지만,¹³⁰⁾ 동반 출토된 유물들로 미루어 볼 때 10세기 후반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¹³¹⁾ 문제의 洗도 그 무렵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사룡구요지에서도 적지 않은 1식 쌍봉문청자가 출토되었다(도38).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출토지점이 모두, 앞서 살펴본 I 형 쌍접문청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북송초기의 퇴적층이다.¹³²⁾ 이러한 출토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1식 쌍봉문월요청자의 제작시기는 북송초기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2식 쌍봉문월요청자의 경우, 소비지 유적에서 출토된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송대에 운영된 월요 요지에서는 이 형식의 쌍봉문이 새겨진 청자가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사룡구요지의 발굴보고에 따르면, 2식 쌍봉문청자는 북송초기의 퇴적층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모두 북송중기~남송초기의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도39).¹³³⁾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볼 때, 1식과 2식의 월요쌍봉문도, I 형과 II 형 월요쌍접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행한 시기의 측면에서 서로 선후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송초기는 1식 쌍봉문의 유행시기이고, 북송중기 이후는 2식 쌍봉문의 유행시기가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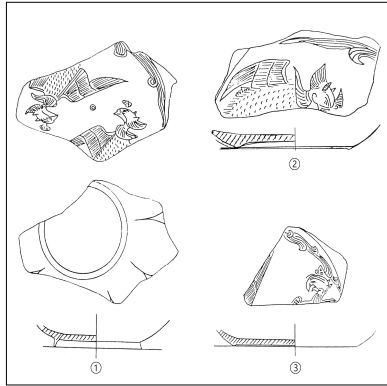
129) 陳信雄, 『越窯在澎湖—五代十國時期大量越窯精品的發現』, 文山書局, 1994, 98~99쪽.

13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第二工作隊 等(執筆 董新林 等), 「內蒙古巴林左旗遼代祖陵陵園遺址」, 『考古』 2009년 제7기, 49~50쪽 및 도판16의 3 참조.

131) 彭善國, 「試述4~11世紀越窯青瓷在東北地區的流布」, 『2007' 中國越窯高峰論壇論文集』, 文物出版社, 2008, 232쪽 참조.

132)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等,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42쪽 및 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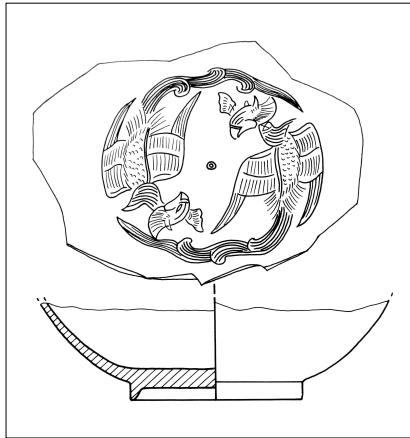
133)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等,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100쪽 및 1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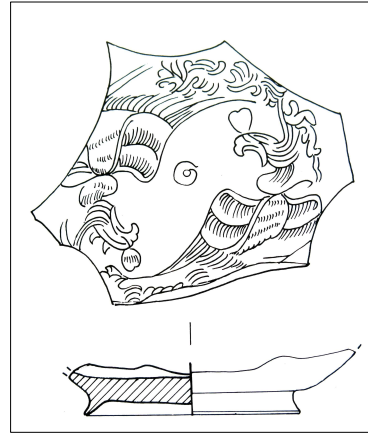
도36 越窯劃花雙鳳紋(1식)碗(①)·盤(②·③), 澎湖遺蹟 출토



도37 越窯劃花雙鳳紋(1식)盤
遼代祖陵陵園 출토



도38 越窯劃花雙鳳紋(1식)碗
寺龍口窯址 출토



도39 越窯劃花雙鳳紋(2식)碗
寺龍口窯址 출토

V.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제작시기

이제까지의 검토를 통하여 월요풍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의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알 수 있게 된 것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귀결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고려청자에 보이는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은 각각 월요의 I형1식 또는 I형2식 쌍접문과 1식 쌍봉문을 모방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모방의 대상이 된 월요의 I형1식 또는 I형2식 쌍접문과 1식 쌍봉문의 유행시기가 모두 북송초기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에 동의한다면, 고려청자에 보이는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이 북송초기의 월요의 그것들을 모방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필연이다.

북송초기는 월요의 황금기에 속한다. 특히 문양의 측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다양하고 풍부한 소재의 세선획화문 등이 정교하고 화려하게 시문된 精品 청자가 대량생산되었으며, 이것들은 송과 요의 최고지배계급을 포함한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다. 元德李后陵(1000, 도40)¹³⁴⁾·蘇州虎丘雲岩寺塔(961)¹³⁵⁾·黃岩靈石寺塔(998)¹³⁶⁾·遼韓佚夫婦合

134)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北宋皇陵』, 中州古籍出版社, 1997, 321~324쪽.

葬墓(997·1011, 도41)¹³⁷·遼陳國公主墓(1018)¹³⁸ 등에서 출토된 월요청자 정품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이 시기의 월요는 조형과 장식 등의 측면에서 다른 요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¹³⁹ 定縣靜志寺塔(977)에서 출토된 정요백자화형반에 보이는 쌍접문도 그러한 영향관계의 산물 가운데 하나로 판단된다(도42).¹⁴⁰ 이 쌍접문은 월요의 I형1식 쌍접문과 매우 흡사하다.



도40 越窯劃花雲鶴紋套盒, 元德李后陵(1000) 출토,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도41 越窯劃花紋瓷器 各種, 遼韓佚夫婦合葬墓(997·1011) 출토, 首都博物館

북송초기의 월요청자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환영받은 상품 가운데 하나였다. 사실 북송초기에 접어들기 이전에는 월요청자가 중국의 무역자에서 차지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월요청자가 중국의 여러 요장의 자기들 가운데 해외수출량이 가장 많은 자기로 자리 잡은 것은 북송초기의 일이었다.¹⁴¹ 앞서 언급한 인도네시아 井里汶沈沒船(968년경)에서 출수된 30여만 점의 자기 가운데 절대 다수가 월요청자라는 점이 이를 실감나게 보여준다. 말하자면 북송초기는 월요청자 수출의 황금기였던 셈이다. 월요의 쌍접문·쌍봉문청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에 유입되고, 그 문양들이 고려청자에 시문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42 定窯刻花雙蝶紋花形盤, 定縣靜志寺塔(977) 출토, 定州市博物館

요컨대, 월요의 쌍접문·쌍봉문이 고려에 유입되고 아울러 시문되기 시작한 것은 북송초기

135) 蘇州市文物保管委員會(錢鏞等執筆), 「蘇州虎丘雲岩寺塔發現文物內容簡報」, 『文物參考資料』 1957년 제11기, 40쪽.

136) 浙江省博物館編, 『浙江紀年瓷』, 文物出版社, 2000, 圖198.

137) 北京市文物工作隊(黃秀純等執筆), 「遼韓佚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84년 제3기, 365~367쪽.

138)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等, 『遼陳國公主墓』, 文物出版社, 1993, 55쪽.

139) Rita C. Tan, Influence of Yue ware on shapes and decorative styles of other wares, *Yue Ware, Miscel Pcelain*, 上海古籍出版社, 1996, pp.28~33; 林士民, 『青瓷與越窯』, 上海古籍出版社, 1999, 284~287쪽.

140) 定縣博物館, 「河北定縣發現兩座宋代塔基」, 『文物』 1972년 제8기, 40~41쪽; 黎毓馨主編, 『心方俗外—定州靜志、淨衆佛塔地宮文物』, 中國書店, 2014, 239~243쪽 참조.

141) 秦大樹谷艷雪, 「越窯的外銷及相關問題」, 『2007'中國越窯高峰論壇論文集』, 文物出版社, 2008, 190~196쪽 참조.

에 해당하는 10세기 후기에서 11세기 초기에 이르는 시기의 어느 때라고 생각한다. 이때가 월요풍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가 출현한 시점이고, 또한 그 제작시기의 상한이 되는 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송초기가 끝나면서 월요에서는 고려청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I형 쌍접문과 1식 쌍봉문이 사라지고 새로운 형식의 쌍접문(II형)과 쌍봉문(2식)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월요에 새롭게 등장한 II형 쌍접문과 2식 쌍봉문 가운데 전자는 고려청자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후자와 고려청자의 2식 쌍봉문 사이의 영향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송초기가 끝날 무렵부터 고려청자의 월요풍 쌍접문과 쌍봉문은 독자적인 전개 과정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이 언제 소멸되었는지를 알려줄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그러한 문양이 시문된 표본들의 장소공예 방식을 통하여 그 대략적인 윤곽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표본들은 모두 다수의 백색내화도빛음을 받치고 墊燒하거나 陶枕支燒 방식으로 소성하였다. 여기서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의 소멸 시기와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규석받침으로 소성한 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규석받침은 굽다리바닥에 받침 흔적을 남기지 않고 굽안바닥에 조그만 받침 흔적을 남길 뿐이라는 점에서 각각 굽다리바닥과 굽안바닥에 지저분한 백색내화도 흔적을 남기는 墊燒와 도침지소보다 발전된 장소공예 방식이었다. 규석받침이 출현한 이후 품질이 높은 청자는 보편적으로 이 방식으로 소성하였다.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청자의 경우와 같이 저경이 크거나 굽다리가 밖으로 벌어진 기물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청자에서 규석받침으로 소성한 예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은 곧 이것들이 규석받침이 출현하기 이전에 제작되었음을 말해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말하자면,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이 소멸한 시점은 규석받침이 출현하기 이전의 어느 때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규석받침은 여요의 支釘支燒法의 영향으로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정지소를 한 여요자기의 외저면에는 깨알 모양의 작은 지소흔이 남아 있는데, 흔히 “芝麻釘”으로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도 43).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여요의 기술적 전통을 이은 북송관요에서도 이러한 장소공예 방식을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규석받침은 고려의 도공이 그렇게 소성한 여요자기나 북송관요자기를 직접 보고 고안해낸 장소공예 방식으로서, 그 출현시기는 예종대(1105~1122년 재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⁴²⁾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이 소멸한 시점은 늦어도 12세기 초기가 되는 셈이다.



도43 汝窯盤(底部), 故宮博物院

이상의 논의에 큰 무리가 없다면, 월요풍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의 제작시기는 10세기 후기~11세기 초기의 어느 시점부터 늦어도 12세기 초기의 어느 때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초기청자의 표식적 기종인 해무리굽완이 12세기 초기 무렵에 소멸된다는 관점에

142) 규석받침의 출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李喜寬, 「12세기 초기의 고려청자와 여요 및 북송관요—북송관요자기의 실체를 찾아서」, 『皇帝와 瓷器』, 景仁文化社, 2016을 참조하라.

서 보면,¹⁴³⁾ 그것들은 사실상 초기청자시기의 산물인 셈이다.

VI. 맺음말—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도자사적 啓示

중국도자사의 측면에서 볼 때, 북송시기는 문양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당·송시기의 대표적 요장들에서는 오대시기까지는 순정하고 윤택한 釉의 미적 측면을 중시하다가 북송시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소재와 기법의 문양을 중시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¹⁴⁴⁾ 예컨대, 월요에서는 북송초기부터 시기를 같이하거나 달리하여 세선획화문·각획화문·斜粗刀刻花紋 등이,¹⁴⁵⁾ 정요에서 각화문과 인화문 등이,¹⁴⁶⁾ 요주요에서 剔花紋과 인화문 등이 크게 유행하였다.¹⁴⁷⁾ 북송시기에 황금기에 접어든 자주요에서는 월요·정요·요주요 등보다 더욱 다양한 문양기법을 구사하였는데, 각화·획화·박지·철화·녹채·갈채·상감·인화·척화·삼채 등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이다.¹⁴⁸⁾

북송시기는 고려청자의 경우 대략 초기청자시기에 해당한다. 이제까지 초기청자시기에는 문양이 거의 유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에 고려청자는 세계도자사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 이래 출현하고 아울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법한 고려청자가 과연 실제에 있어서 그러하였을까? 이것은 필자가 도자사를 연구하면서 품어온 오랜 의문 가운데 하나였다. 근래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이 고려의 초기청자시기에 유행하였다면, 적어도 문양의 측면에서 초기청자의 양상을 다르게 이해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그런데 필자는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청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들과 전체적인 풍격이 유사하고 장소공예 방식도 동일하지만 다른 소재의 문양이 음각된 일군의 표본들을 발견하였다. <표2>는 이러한 표본들의 출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용희 선생이 소장하고 있는 청자음각화문완편(LC㉔)은 동체 부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기형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굽깎음이 단정하고 굽다리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9개의 백색내화도빛음을 받친 흔적이 남아 있다(도44). LC㉑·㉓과 굽의 형태 및 장소공예 방식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풍격도 유사하다. 내저면에 독특한 모습의 花紋을 정교하게 음각하였는데, 월요나 요주요 등에서 발견되는 화문들과 일정한 차이가 있어 고려의 도공이 고안한 문양인지도 모르겠다. 이용희 선생의 말에 따르면, 이 표본은 사당리요지에서 채집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지점은 LC㉑·㉒·㉓·㉔를 채집한 지점과 동일하다.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에도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와 흡사한 풍격의 청자음각앵무문접시편(KS㉔)이 소장되어 있다(도45). 이 표본은 1990년대 고려청자박물관을 건립할 때 그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사당리23호요지 부근에서 출토되었다.¹⁴⁹⁾ 내저면에 앵무문이 음각되어

143) 해무리굽완의 소멸시기에 대한 여러 견해는 李喜寬, 「韓國 初期靑瓷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지방사와 지방문화』 14-2, 2011, 39~41쪽 참조.

144)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等,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355쪽 및 361쪽; 鄭嘉勳, 「宋代越窯刻劃花裝飾淺析」,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 제5집, 2002, 107쪽 및 110쪽.

145)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等,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361~366쪽; 鄭嘉勳, 「宋代越窯刻劃花裝飾淺析」,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 제5집, 2002, 107~111쪽.

146) 穆青, 「定窯白瓷裝飾技法及鼎盛期的典型紋樣」, 『中國定窯』, 2012, 274~277쪽.

147) 陝西省考古研究所·耀州窯博物館, 『宋代耀州窯址』, 文物出版社, 1998, 617~619쪽.

148) 中國硅酸鹽學會 編, 『中國陶瓷史』, 文物出版社, 1982, 241~246쪽; 馬小青, 「磁州窯의 다양한裝飾技法とその製作時期」, 『白と黒の競演—中國·磁州窯系陶器の世界—』, 大阪市立美術館, 2002, 159~170쪽.

있으며, 각이 지게 깎은 굽다리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10여개의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치고 소성하였다. 기형과 굽의 형태 및 장소공예 방식 등이 특히 SD㉑과 유사하다.



도44a 靑瓷陰刻花紋碗(LC㉑), 사당리요지 출토, 개인(李龍熙)



도44b 도44a의 底部



도45a 靑瓷陰刻鸚鵡紋 접시(KS㉑)
사당리요지 출토, 고려청자박물관



도45b 도45a의 底部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당리요지 출토품 가운데에도 기형·문양기법·장소공예 등의 측면에서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와 흡사한 실례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SD㉑는 넓은 내저면에 모란문을 정교하게 음각하였으며, 낮은 굽다리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치고 소성하였다(도46).¹⁵⁰⁾ 남아 있는 내화토 흔적으로 미루어 대략 7~8개의 내화토빚음을 받친 것으로 추정된다. SD㉒는 SD㉑와 기형·문양·장소공예 등의 측면에서 매우 흡사하여 마치 한 도공이 만든 것 같다(도47).¹⁵¹⁾ SD㉓는 陶枕支燒를 한 접시편이다. 굽 안바닥에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 3개가 남아 있다(도48). 넓은 내저면에 생동감 있는 음각앵무문의 일부가 남아 있다.¹⁵²⁾ SD㉔도 내저면에 앵무문이 음각된 작은 접시편인데, 앵무문의 꼬리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도49).¹⁵³⁾ 기형이나 굽의 형태 그리고 장소공예 등이 SD㉑과 매우 흡사하다. SD㉑는, 이제까지 살펴본 모

149) 이 점은 고려청자박물관 조은정 학예사의 전언에 따른 것이다.

150) 황지현·장성욱 편,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 125쪽 도204.

151) 황지현·장성욱 편,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 487쪽 참고도판30.

152) 황지현·장성욱 편,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 487쪽 참고도판31.

153) 황지현·장성욱 편,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 487쪽 참고도판31.

든 표본들의 경우 내저면에 문양이 새겨진 것과 달리, 기물의 외측면에 劃花技法의 용문이 시문되었다(도50).¹⁵⁴⁾ 북송말기에 정요에서 제작된 白瓷 “尙食局” 銘碗의 경우도 외측면에 SD㉔의 용문과 비슷한 형태의 용문이 刻花된 예가 있는데(도51),¹⁵⁵⁾ 양자 사이에 영향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굽다리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대략 7~8개의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치고 소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46a 靑瓷陰刻牡丹紋접시(SD㉔)
사당리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도46b 도46a의 底部



도47a 靑瓷陰刻牡丹紋접시(SD㉔)
사당리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도47b 도47a의 底部



도48a 靑瓷陰刻鸚鵡紋접시(SD㉔)
사당리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도48b 도48a의 底部

154) 황지현·장성욱 편,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 92쪽 도141.

155) 北京藝術博物館 編, 『中國定窯』, 中國華僑出版社, 2012, 86~87쪽.



도49a 靑瓷陰刻鸚鵡紋 접시(SD㉔), 사당리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도49b 도49a의 底部



도50a 靑瓷陰刻龍紋碗(SD㉕)
사당리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도50b 도50a의 底部



도51 定窯白瓷龍紋“尙食局”銘碗, 曲陽縣定窯窯址 출토
河北省文物研究所

SD㉔~㉕ 가운데 필자가 구체적인 출토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총 4점이다(SD㉔·㉕·㉔·㉕). 이 가운데 3점은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 표본의 대부분이 출토된 사당리요지 ‘가’ 구역 3지점의 T4에서 출토되었고(SD㉔·㉕·㉔), 나머지 한 점만 T3에서 출토되었다(SD㉕). T3은 T4로부터 동남쪽 방향으로 약 3~4m 떨어진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¹⁵⁶⁾ LC㉔와 KS㉔가 발견된 곳도 이 부근이다. 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청자들과 흡사한 풍격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소재의 문양이 음각된 일군의 표본들도 그것들과 동일한 요장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후자가 전자와 전체적인 풍격 뿐만 아니라 문양기법이나 장소공예 방식까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후자도 전자와 마

156) 황지현·장성욱 편,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 15쪽.

찬가지로 초기청자시기에 제작되었을 공산이 크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문양이 새겨진 초기청자의 표본으로 제시한 것은 30례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양 소재도 쌍접문·쌍봉문·화문·모란문·앵무문 등 5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본을 토대로 초기청자시기에 문양이 유행하였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표본들이 모두 사당리요장에서 제작되고 아울러 사당리요지 발굴품 가운데 더 많은 수의 표본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사당리요장에 국한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서 또 다른 의문이 떠오르게 된다.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청자는 강진의 수많은 고려청자요지 가운데 왜 오직 사당리요지에서만 발견되는 것일까? 바꾸어 말하면, 사당리요지를 제외한 나머지 요지, 예컨대 용운리9호·10호요지 등에서는 왜 그러한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청자가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

다 아는 바와 같이, 용운리9호·10호요지는 강진의 대표적인 고려초기·중기요지로서 이미 정식 발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지의 출토품에서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청자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곧 이 두 요장에서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청자를 제작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다. 우리는 그 원인으로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용운리9호·10호요장이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의 유행이 끝난 뒤에 開窯했을 가능성이다.¹⁵⁷⁾ 또 다른 하나는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청자를 제작한 사당리요장과 용운리9호·10호요장의 문양을 포함한 청자제작의 양상 자체가 달랐을 가능성이다.

첫 번째 가능성에 입각하여 보면, 용운리9호 및 10호요장은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를 제작한 문제의 사당리요장보다 훨씬 늦게 개요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요장의 개요시기가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소멸시기의 하한인 12세기 초기 이후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세 요장의 개요시기에 대한 입장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와는 크게 다르다. 오늘날 대다수의 연구자는 용운리9호요장과 10호요장의 개요시기가 사당리요장의 그것보다 이르다고 믿고 있다.



도52 天靑釉瓷器片, 淸涼寺汝窯址 출토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도53 臨汝窯刻花牡丹紋粉盒, 淸涼寺窯址
출토,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157)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용운리9호·10호요장이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이 고려청자에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폐요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용운리10호요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고려 중기청자가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장남원, 『고려중기 청자 연구』, 혜안, 2006) 실제에 있어서 이 가능성이 성립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가능성은 배제하였다.

한편,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지역에서 운영된 요장들이라도 문양을 포함한 자기의 제작양상은 서로 다른 예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북송말기의 청량사요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¹⁵⁸⁾ 오늘날의 河南省 寶豐縣 清涼寺村에 있던 이 요장에서는 북송말기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개의 요장이 운영되었다. 그 하나는 일반 상품용 자기를 생산하던 민요적 성격의 요장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용자기를 생산하던 전문적 製樣須索窯였다. 오늘날 흔히 전자는 청량사요로, 후자는 창량사여요로 부른다. 후자가 어용자기를 생산하던 시기는 이 요장의 “성숙기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후자가 생산한 자기는 이른바 “天靑釉瓷器”로서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실투성이 비교적 강하고 문양을 새긴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도52). 역사상 “여요”로 부르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반면 이 시기에 전자에서 생산한 자기는 그 대부분이 품질이 그다지 높지 않고 각화문이나 인화문이 시문된, 이른바 臨汝窯靑瓷였다(도53).

만약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청자가 강진의 수많은 고려청자요지 가운데 오직 사당리요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첫 번째 원인 때문이라면, 우리는 사당리요장과 용운리9호·10호요장 등의 개요시기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것이 두 번째 원인 때문이라면, 이제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용운리9호나 10호요지의 발굴결과를 기준으로 사당리요장의 청자제작양상을 해석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청량사요의 발굴결과에 의지하여 자기제작양상이 전혀 다른 창량사여요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해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가 오직 사당리요지에서만 발견되는 실제적인 원인은 과연 양자 가운데 어느 쪽일까? 근래에 우리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청자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

致謝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은혜를 입었다. 강진요지의 산증인인 李龍熙 선생님은 이 연구의 핵심 자료를 제공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시를 주셨다. 그리고 고려청자박물관의 조은정 학예사, 충북대학교 김세진 선생, 문화재청의 최명지 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의 김현정·서유리 연구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송인희 연구원, 명지대학교의 박미화 선생은 구하기 힘든 자료를 찾아 제공해주거나, 필자와의 토론 과정에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거나, 원고를 읽고 많은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다.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연구는 결실을 맺기 힘들었을 것이다.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158) 북송말기의 청량사요의 자기제작양상과 성격에 대해서는 李喜寬, 「여요와 그 성격 문제」, 『皇帝와 瓷器—宋代官窯研究』, 景仁文化社, 2016, 110~131쪽을 참조하라.

종합토론

‘근대 미국의 고려청자 Collection 형성과 연구 성과의 의미’ 토론문

한 성 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장)

격동의 시기였던 근대기 미국에 유입된 고려청자가 갖는 학문적 중요성과 성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고 있어 고려청자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 논고입니다. 그 동안 다루지 않았던 분야를 현지 조사와 문헌 자료 등을 통해 매우 자세히 검토하고 있어 특별한 의문 사항은 없으나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한국 도자의 미국 유입 시기를 1880년 전후부터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입 초기는 주로 일본이나 유럽을 통해 분청사기와 16~17세기 지방백자가 중심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박람회 출품 등의 합법적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에서 직접 유입되는데, 특히 1910년대와 1920년대에 고려청자를 수집하는 개인 수집가가 늘어나고, 품질이 우수한 고려청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중 일부가 전시에 출품되고 박물관과 미술관 소장품에 포함되면서 연구가 실시되고 한국 도자를 평가하는 기존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청자의 조형이 일본과 중국 도자에 비해 다른 특징이 있으며, 무엇보다 품질의 우월성이 인정되어 인기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보다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1910년대 이후에는 분청자와 백자는 일부만 유입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청자에 비해 분청과 백자의 관심이 적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1880년대 이후 조선 왕실에서 일본과 歐美地域 외국 사절이나 인사들에게 주는 선물 품목에 고려청자가 포함되고 있는데, 왕실에서 고려청자를 선물로 포함한 계기 등이 궁금합니다. 왕실에서 이를 포함한 것인지, 외국 사절 등이 이를 선호하여 포함한 것인지요? 또한, 고려청자에 대한 조선 왕실의 시각 또는 인식도 궁금합니다.

3. 1920년대 후반 이후 중요한 고려청자 수집가들이 사망하고 고려청자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되면서 1930년대 이후 새로운 수집가들이 형성되지 않고, 연구도 부진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집과 연구 부진의 원인을 고려청자의 경제적 가치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외의 요인은 없는지요?

4. 고려청자의 가격이 1920년대 이후 크게 상승하여 중국과 일본 도자에 비해서도 높은 가격이었으며, 1930년경에는 양질의 고려청자는 호피와 細簾, 尾扇 등과 함께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는 고가품으로 인식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렌과 프리어의 거래에서 고려청자는 대접류의 경우 대체적으로 25\$에서 40\$이었고, 병과 주자류는 125\$에서 200\$ 사이에서 책정되었으며, 경덕진 청백자주자와 청자과형주자, 청자장경병 3점이 각각 200\$로 책정되어 가장 높은 가격이었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려청자의 인기도 짐작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도자에 대한 당시 미국인들의 평판과 인식도 궁금합니다.

5. 고려청자가 상품으로서의 인기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외에 학술적 자료나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 실내 장식품 등 다양한 수집 이유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가 미국에서 고려청자의 가치를 가장 선호하게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6. 미국에 의한 민족지적 조사의 목적과 성격, 특징, 그리고 현재적 관점에서 갖는 의미 등을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7. 고려청자의 본격적 연구는 고려청자의 인기가 높았던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고려청자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1950년대까지 새로운 연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집에 더욱 좋은 여건을 갖춘 1945년 이후의 수집 활동이나 연구 성과 등도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소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강진 청자요지의 조사 현황과 성과’에 대한 질의문

박 정 민(한울문화재단연구원 유물관리부장)

조은정 선생님의 ‘강진 청자요지의 조사 현황과 성과’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강진 청자요지의 조사상황과 그 성과에 대하여 유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14년에 조사된 ‘고려 고요지 경사도’나 1925년에 작성된 ‘강진 청자요지 분포도’와 같은 일제강점기 자료부터 시기별로 정리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서 고려청자 연구에 있어서 사당리를 비롯한 강진의 청자요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의 특성상 질의자가 발표자에게 특정 조사나 출토 유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른 자리에서도 언급되었던 광복이후의 상황이나 사당리 출토유물 보다는 일제강점기 강진 청자요지의 조사내용에 관하여 단편적인 궁금증들을 질의 드립니다.

우선 일제강점기 강진 청자요지에 대한 접근은 조선총독부박물관과 같은 공적기관과 도자기 연구모임을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축적된 여러 자료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고려청자에 대한 학술연구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이외에도 당시 경성, 광주, 목포 등지에 거주하던 일본인, 특히 고미술상에 의한 강진지역 청자요지에 대한 접근상황에 대해 혹시 발표자께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글에서 정리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취했던 강진 청자요지에 대한 접근방식에 부안 청자요지의 사례와 비교할 때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일찍부터 강진 청자의 우수성을 파악했던 외국인들의 인식과 행보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려시대의 越窰風 雙蝶紋·雙鳳紋 靑瓷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고려 초기청자의 새로운 면모」에 대한 토론문

이 중 민(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오래전부터 쌍나비는 부귀, 아름다움, 행운, 행복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쌍봉은 상서롭고 고귀함을 대표하는 문양으로 각종 공예품이나 의복 등에 활용되어 왔다. 쌍접문과 쌍봉문은 북송기 월주요와 고려청자 제작시기에 표현된 대표적인 문양의 하나로 일정한 공간 안에 서로 대칭되는 방식으로 묘사되었으며 특정한 시점에 제작되다가 사라졌다. 이 논문은 월주요청자에 보이는 쌍접문과 쌍봉문이 고려청자에도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의문점을 규명한 글이다.

월주요청자와 고려청자에 보이는 쌍접문과 쌍봉문은 영향관계와 제작시기 문제에 있어서 꽤 오랫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궁금해 했던 주제였다. 그 이유는 월주요에서의 문양등장 시기와 고려청자에서의 제작시기가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고고학적 성과물을 충실히 분석하고 여기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비교분석하여 영향관계, 계통문제, 제작시기문제 등을 밝혔다. 평소 다른 논고에서도 돋보이는 치밀한 분석력은 이 논고에서도 어김없이 장점으로 작용하며, 분석의 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이의를 달기 어렵게 한다. 논고를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질의함으로써 질의의 책무를 면해보려 한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발표자가 구분한 쌍접문, 쌍봉문의 I, II형식의 서술 내용 중 간략한 특징과 편년을 확인해 보겠다.

쌍접문 I형 : 특징은 대칭묘사. 머리를 맞댐 -1식(장식적인 더듬이, 세 종류 날개, 월요에 많음) -2식(뒷날개 작음, 장식요소 떨어짐, 월요에 적음) -3식(뒷날개 과도하게 작음, 2식과 유사, 월요에 없음) * 고려청자는 I형에 속하며 특히 1, 2식을 많이 모방함
쌍접문 II형 : 특징은 서로 배를 비껴 대고 대칭 이룸. 식 없음
쌍봉문 I형 : 두 마리가 원을 그림 -1식(휘날리는 머리털과 같기, 윤곽 그린 후 정밀묘사, 월요에 많음) -2식(머리털, 갈기, 날개 끝에서 윤곽선 대신 직접 선으로 묘사, 1식에 비해 간략화) * 고려청자 쌍봉문 1식은 드물지만 월요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유사 고려청자 2식 쌍봉문은 독자적으로 1식 쌍봉문이 변화한 것

발표자는 쌍접문 I형-1,2식과 쌍봉문 1식의 유행 시기를 북송초기로 보고 그 근거로 사 룡구 월요의 북송 초기층(960~1023)의 출토 예를 들었다. 또 고려청자의 동일형식은 양식 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10세기 후기에서 11세기 초로 비정하였다. 북송 초기가 지나면 월요 에서는 고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I형 쌍접문과 1식 쌍봉문이 사라지고 새로운 형식인 II형 쌍접문, 2식 쌍봉문이 등장한다고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는 이들 문양

을 넣은 고려청자에 규석받침이 없다는 것을 들었다. 즉, 쌍접문, 쌍봉문이 있는 고려청자는 백색내화토 받침에 도침지소방식으로 이들은 규석받침 이전에 등장한 사례로 본 것이다. 이러한 예에 근거하여 발표자는 월요풍의 쌍접문, 쌍봉문 고려청자 제작시기를 10세기 후반~11세기 초반에 시작하여 늦어도 12세기 초반경이면 끝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초기청자의 표식기종인 해무리굽완의 소멸시기를 12세기 초로 보면서 같은 시점에 제작된 초기청자의 산물로 결론지었다. 여기에서 질의자는 편년에 대한 의문점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한다. 질문의 핵심은 고려청자의 쌍접문, 쌍봉문에 대한 발표자의 편년이 너무 빠른 견해가 아닌지와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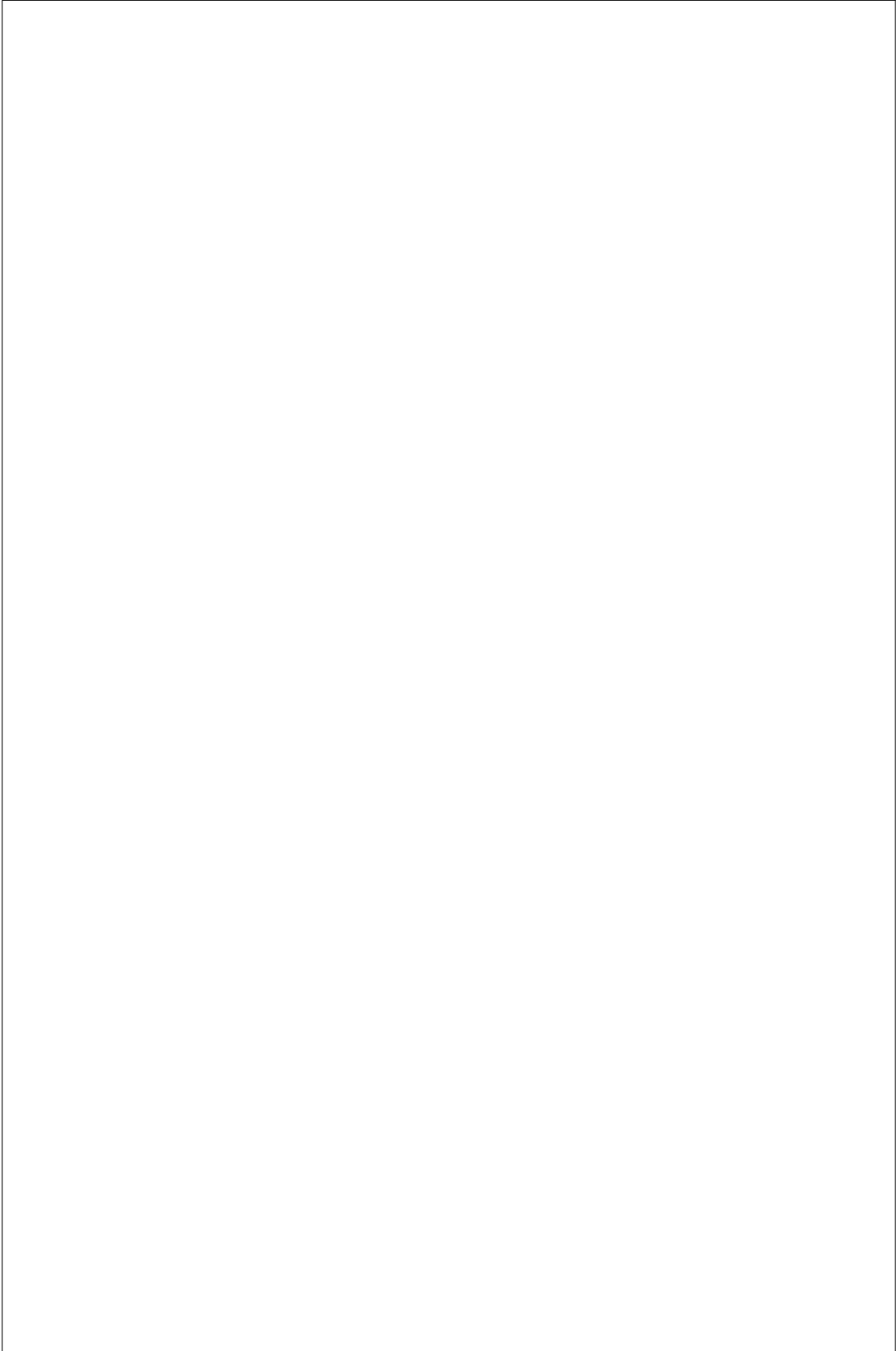
첫째, 백색 내화토 빗음받침과 규석받침의 상관관계를 질문드린다. 발표자는 본문에서 이들 문양을 가진 고려청자들이 백색 내화토 빗음받침을 사용한 것에 주목하여 ‘월요풍의 쌍접문, 쌍봉문이 고려청자에서 출현하는 단계는 규석받침이 출현하기 이전의 어느 때’라고 하였다(발표자 요지문 10쪽 하단). 또 국내의 규석받침은 汝窯의 支釘支燒法의 결과(영향)임을 설명하였다. 즉, 백색 내화토 빗음받침과 규석받침을 선후관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각종 해무리굽완이 발견된 강진 용운리 9호의 경우, 출토된 요도구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支燒具에 규석을 받친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용운리 보고서 도판 편, 1996, 사진번호 136~140). 즉, 강진의 초기청자 중에 일부는 규석을 받쳐 변조한 기물이 보이는 것이다. 발표자의 설명에 의하면 백색 내화토 빗음받침이 규석받침보다 선행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 오히려 동일한 시기에 기물에 따라 받침재료를 달리하여 변조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 질의자의 시각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란다.

둘째, 사릉구 월요 퇴적층에서 발견된 쌍접문, 쌍봉문 청자와 고려의 동일 문양 청자가 유사한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다. 발표자는 월요청자와 고려청자 유물의 형, 식을 세분하여 정교하게 비교함으로써 제작시기를 10세기 후반~11세기 초반부터 12세기 초반경까지로 편년하였다. 사릉구 월요의 북송 초기층에서는 음각의 쌍접문, 쌍봉문 이외에 용문, 연판문, 연밥문, 전지문, 파도문 등 다양한 문양이 함께 시도되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용문, 연판문, 파도문 등은 고려청자의 경우 적어도 12세기경에 와서야 시문된 문양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미 서해안 해저 출수품 등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쌍접문, 쌍봉문이 초기청자의 산물이라면 월요청자의 다른 음각문양은 같은 단계에 수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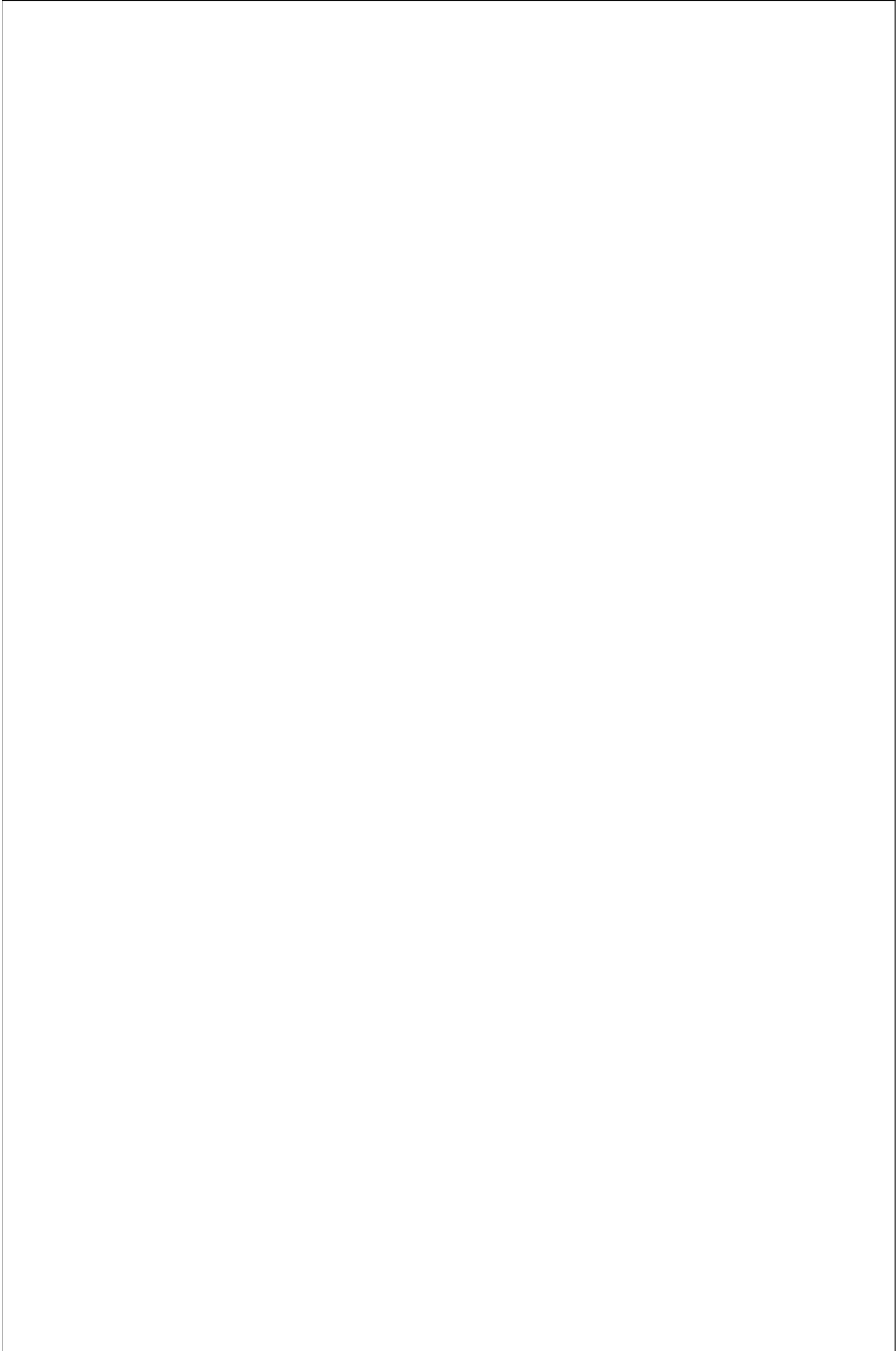
셋째, 동반 유물의 양식과 관련한 질문이다. 쌍접문, 쌍봉문을 새겨 넣은 고려청자 기종은 주로 완과 접시이다. 형태는 완[사당리 보고서에는 鉢로 표현]의 경우 측사면이 직립하여 납작한 통형잔에 가까운 형태를 갖고 있으며, 접시의 경우 측사면 높이가 낮은 직구형(직립구연형)접시이거나 측사면이 살짝 내만한 낮은 접시류로 구성되어 있다. 높이가 낮은 기물에 음각을 한 것은 수작업을 하기에 납작한 기종이 유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015년에 발간한 사당리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쌍접문, 쌍봉문 청자가 사당리 ‘가’ 구역 3지점에서 출토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쌍접문, 쌍봉문이 발견된 사당리 ‘가’ 구역은 유물이 섞여 있으며 인접한 사당리 8호, 23호, 27호, 40호와 섞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사당리 보고서, 2015, 464쪽). 그러나 특히 주목할 점은 초기청자의 핵심인 해무리굽완이 한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쌍접문, 쌍봉문의 시문시기가 초기청자 제작시기와 거리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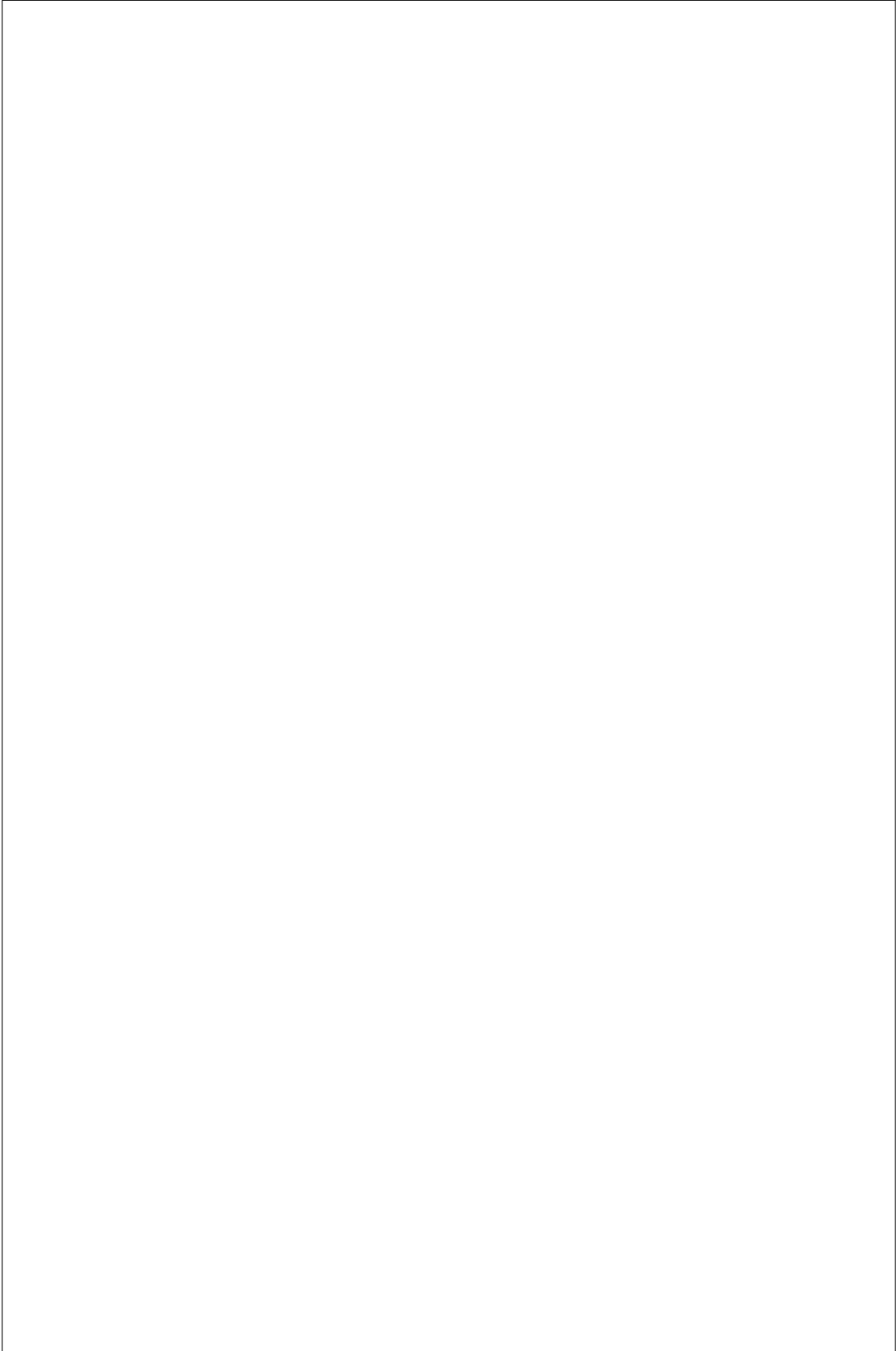
메 모



메 모



메 모



메 모

